

리아호나

**신권: 경건의 능력,
14, 16, 19쪽**

교육: 가난에서 벗어나다, 42쪽
자녀에게 안전한 인터넷 사용
방법에 대해 가르치다, 64쪽
75년 동안 이어 온 봉사과 자립,
81쪽





18 29년, 고대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다. 이러한 성임 방법으로 모든 합당한 남성 회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인 신권을 받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14, 16, 19쪽 참조.



화가 김지

성스러운 사스케하나, 글렌 에스, 홉킨슨

1829년 5월 15일, 침례 요한은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대에 사도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에 따라 침례 요한은 조셉과 올리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다음 침례 요한은 사스케하나 강에서 조셉이 올리버에게, 그리고 나서 올리버가 조셉에게 침례를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서로를 아론 신권에 성임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역사 1:68~72; 교리와 성약 13:1 참조)

몇 주 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모니 근처에서 조셉과 올리버에게 나타나 거룩한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고 그들을 사도로 성임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27:12; 128:20 참조)



복사 금지

그분의 끝없는 관심, 그레그 올슨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누가복음 12:6~7)



리아호나, 2011년 6월호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십일조에서 얻는 축복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현세적으로 자립하여 가족을 강화하십시오

특집 기사

- 16 신권 축복,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다
마크 엘 그로버
축복을 주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암에 걸린 아내에게 하늘에서 오는
도움을 전할 사람은 나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 24 정말이지 그만두고 싶었다
익명
수십 년간 벗어나지 못했던 외설물의
늪에서 빠져나오다.

- 28 행복으로 향하는 참된 길
쿠엔틴 엘 쿡 장로
행복을 위한 다섯 가지 열쇠
- 34 무사히 집으로 항해하여
리처드 엠 롬니
인도 비사카파트남에 사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다.

- 81 교회 복지 계획
자립과 봉사로 이어 온 75년을
기념하며.

교회 본부 기사

- 8 작고 단순한 일
- 11 교회에서 봉사하며: 평의회에서 받은 축복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12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나의 슬픔을 지신 그리스도
제인 블리크

- 14 우리의 믿음: 신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입니다
- 19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의로운 모범의 힘
제리 스트링검
- 20 복음 고전: 후기 성도 결혼관
휴 비 브라운 회장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굳건한 기초를 쌓아
조슈아 제이 퍼키

표지
앞: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되다, 월터 레인, 뒤: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42

42 교육에서 발휘되는 힘
수지 태기 코엘류 칼다스 넬슨
어머니는 내가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46 질의응답
시련이 올 때, 그것이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해 주시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8 여러분의 모범이 중요합니다
조셉 더블류 시타티 장로
복음대로 살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프리카
케냐에 사는 청소년들이 배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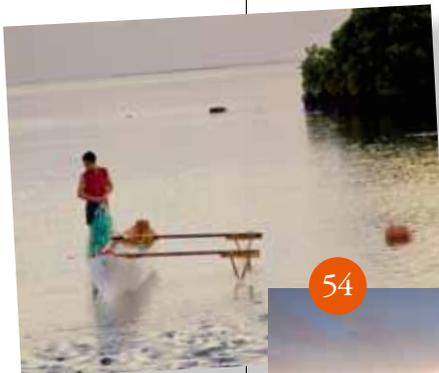
**51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리와
성약 121:41~43**

52 포스터: 성스러운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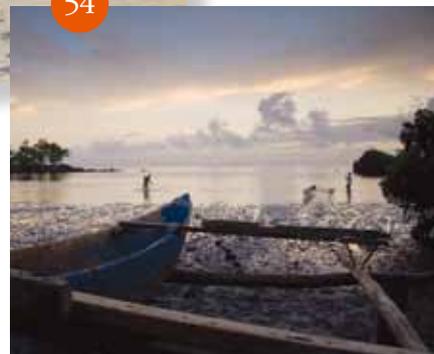
**53 선교 임지에서: 영으로 주고 받은
수확**
페드로 오바에스

**54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애덤 시 올슨
에즈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즈라 곁에서
도움을 주셨다.

58 수영으로 배운 교훈
매리사 톨슨
또래가 주는 압력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54



68

60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아버지는 왜 돌아가셨을까? 구약에
있는 성구에서 답을 엿다.

**61 특별한 증인: 회복된 교회를 통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엘 톰 페리 장로

**62 집에서 초등학교: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줍니다.**
안나 마리아 코번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64 재깍 끄고 말하기
다니엘 케닝턴
코너는 나쁜 웹 사이트를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67 우리들 이야기

68 내가 내린 중요한 결정
레베카 쇼
니콜은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2011년 6월호, 제48권, 제6호
리아호나 09686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머링, 디테라 에프 우호트도르프
심사자도 정회원: 보이드 케이 패커, 앨 톨 페리, 라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룬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앤터슨

편집인: 폴 비 파이퍼
고문: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글든 이세, 요시히코 기구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라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율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트 더 폴리튼, 라렌 포터 곤트, 래리 힐러,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매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케이 오데커크, 조슈아 케이 피카, 제드 이 페라스, 켈린 로우, 리처드 엠 롬니,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넷슨
미술 책임자: 스킵 벤 캄펜
제작 책임자: 제인 엘 피터스
선임 디자이너: 시 캄볼 보트, 토마스 에스 차일드,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스킵 엠 무어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온, 콜레트 네베크 오온, 허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레지널드 케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타머카, 캐슬린 허워드, 드니스 커비, 제니 데이 낄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에번 라슨

통 관: 제536호, 제48권, 제6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1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발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감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i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i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일본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i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une 2011 Vol. 35 No. 6.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에 실린 추가 기사

Liahona.lids.org



성인

"정말이지 그만두고 싶었다."(24쪽) 이는 한 사람이 외설물 중독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사이다. www.liahona.lids.org에 접속하면 이 주제와 관련된 기사들을 볼 수 있다.

청소년



인도 비사카파트남에 있는 청소년들은 가족 안에서 힘을 얻는다.(34쪽 참조) 이 청소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www.liahona.lids.org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



모든 웹 사이트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64쪽 참조) 그러나 www.liahona.lids.org는 안전하므로 이곳에서 여러 가지 놀이와 활동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기타 교회 자료를 www.languages.li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19, 20, 28, 34, 54, 70

간증, 53, 80

결혼, 20

경전 공부, 34

교육, 42

기도, 67, 68

데이트, 19

매체, 64

모범, 19, 28, 48, 54

복지, 81

부모 본분, 20

비탄, 12

사망, 12, 54, 60

상호부조회, 7

선교 사업, 53

성신, 62, 64, 68

신권, 14, 16, 19, 38, 39, 41, 48, 51

신뢰, 60

신앙, 60, 62

십일조, 4

역경, 12, 16, 39, 46

영감, 40

예수 그리스도, 12

외설물, 24

우정, 34, 58

자립, 7, 81

중독, 24

축복, 16, 38, 39, 41

친절, 70

침례, 62, 68, 73

평의회, 11

표준, 28, 48, 58, 64

행복, 20, 28

회개, 19, 62, 64

회복, 52, 61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십일조에서 얻는 축복

하 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주고자 하십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해의 왕국에서 가족에 속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은사를 받으려면 그 왕국의 율법에 따라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88:22 참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자 이 생에서 따라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일조의 율법은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계명 중 하나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번 수입 전체에서 십 분의 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계명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번 얼마 되지 않는 돈에서 십 분의 일에 해당하는 동전을 담은 봉투를 감독님에게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십일조를 낼 때 오는 한 가지 축복은 더 높은 율법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해의 왕국에서 생활하려면 천남의 법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해의 왕국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에서 완전한 십일조를 낼 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준비되는데, 이는 영생이라는 은사를 받기 위해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첫째, 십일조를 교회에 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완전한 십일조를 꾸준히 내 온 사람은 누구나 이 말이 사실임을 알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영적인 축복이, 어떤 때는 현세적인 축복이 옵니다. 주님은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이 정하신 때에 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올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훌륭한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믿는 신앙이 커집니다. 헌납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헌납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한다는 진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겨우 10퍼센트만을 바치라고 하신 점에 대해 도리어 감사한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할 준비를 더 갖추게 됩니다.

둘째, 꾸준히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더 큰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일조를 바치겠다는 성약에 충실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말라기 3:10 참조) 따라서 십일조를 바칠 때 얻는 가장 큰 축복 한 가지는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건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그분도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완전한 십일조를 바칠 때 따르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평안한 느낌을 얻는 것입니다. 십일조의 계명을 지켜 온 사람은 그러한 평안이 실제로 찾아오며 또 그것이 얼마나 값진 축복인지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십일조를 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지상 생활 동안,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가 낸 십일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해할 때, 그러한 사랑은 더욱 커집니다.

주님은 권세를 받은 그분의 종들을 통해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 십일조를 사용하십니다. 십일조를 내는 사람은 곧 주님을 도와 가족이 영원토록 인봉될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내는 사람은 주님을 도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은 주님을 도와 배고픈 사람과 고통 받는 사람을 주님의 종을 통해 주님의 방법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쓰이기에, 그러한 일을 돕는 주님의 종이려면 누구나 사랑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일조를 내는 사람들도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이 지나면 십일조 결산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십일조를 낸다고 스스로없이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 때로는 직접 보여 주는 것이 어떤 원리를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169쪽)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십 분의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시범으로 보여 달라고 한다. 같은 물건 10개 중에서 하나를 따로 떼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공과를 마무리할 때,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십일조 명세서 작성 방법을 보여 달라고 한다.
- “여러분이 가르치는 반원들은 참여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3쪽) 아이어링 회장이 말씀한 “영생이라는 은사를 받기 위해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들을 느[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가족들에게 의견을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느껴야 하는 것을 느끼도록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청소년

돈은 충분했다

파비아노 도스 산토스 다 실바

나는 열일곱 살 때 선교사들을 만났다. 당시에 나는 형과 함께 살았는데, 1년 전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해서 사는 것이 매우 힘들 때였다. 나는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이 교회가 내가를 찾아 해매던 교회임을 알았다. 하지만 친구들의 영향으로 일요일에 교회에 갈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주중에 하는 교회 활동에 참석했다. 하나같이 웃고 즐기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내 마음도 무척 기뻐졌다. 선교사들은 그 기회를 빌어 청소년들과 함께 내게 복음 토론을 가르쳤다. 느낌이 아주 좋아서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교회에 들어온 뒤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나는 동네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고 집회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다. 비회원인 친구들은 나와는 아무것도 함께 하려 하지 않았다. 외로울 때면 나는 기도를 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매달 어머니께서 남기신 기금에서 돈을 조금씩 받았다. 턱없이 적은 돈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는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십일조를 내고 세미나리와 일요일 모임에 가기 위한 차비도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월말에 나는 내게 필요한 만큼 돈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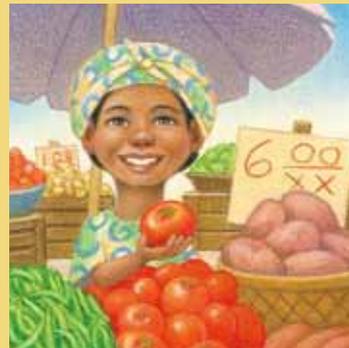
십일조를 내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계명에 순종하면서 간증이 더욱 커졌고,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덕분에 나는 어려움을 겪는 새로운 회원들에게 격려를 해 줄 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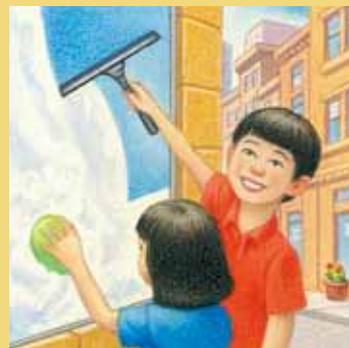
어린이

나도 십일조를 낼 수 있어요

십일조는 수입으로 얻은 것 중에서 10퍼센트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는 일을 하는 세 어린이가 나옵니다. 그림 옆에 있는 첫 번째 빈칸에 어린이가 이 일을 해서 받을 수입을 짐작해서 적어 보세요. 두 번째 칸에는 그에 해당하는 십일조가 얼마인지 적어 보세요.







한 가지 더: 이렇게 십일조를 낸 어린이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을까요?(실마리: 아이어링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세요.)





신앙 · 가족 · 구제

현세적으로 자립하여 가족을 강화하십시오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우 리 자신과 가족을 보살피는 능력인 자립을 향상시키는 것은 모든 자매가 받은 책임입니다. 우리는 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을 부양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영감을 구하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일할 때 자립할 수 있습니다.

자립하게 되면 자신에게 있는 자원과 축복을 활용하여 문제가 될 상황에 대비하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어려움을 신앙으로 맞설 용기를 얻고자 간구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립한다면 다른 사람을 돌보겠다고 맺은 우리의 성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에서 자립에 관한 원리와 기술을 배웁니다. 자매들은 예산 계획과 빚 청산,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 경전과 복음, 다른 이들에게 읽고 학습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 기술, 신체 건강, 운동, 중독 예방 및 회복, 사회적 정서적 건강, 질병 예방, 원예, 음식 생산과 저장, 응급상황 대비, 그 외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다른 많은 것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¹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백 자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을 부양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 작년에 갑자기 작고하신 [제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삶에서 이룬 자립에 관한 증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유효한 성전 추천서와 손때가 묻은 경전과 복음 학습 지도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어머니께서 수천 끼에 달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신 프라이팬, 냄비, 접시 등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천으로 만든 켈트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쓰고, 닳아 없어질 때까지 쓰고, 고쳐 쓰라. 그래도 안되면 없이 지내라”라는 옛 격언을 믿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고 만들어 저장해 둔 음식들을 보았습니다. 특히나 감동을 준 것은 평소 쓰시던 작은 가계부였는데 거기마다 수년간 쓰신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검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비상시를 대비해 저축하신 돈을 얼마 정도 남기셨고, 빚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충실한 삶을 살면서 배운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영감을 주셨다는 점입니다.”²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자매들과 그들의 가족이 현세적인 자립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2. 내 자신의 현세적 자립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www.reliefsociety.lds.org를 방문한다.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년), 9.4.2 참조.
2. 줄리 비 백, “복지와 관련된 상호부조회 회장의 책임”, *복지와 자립의 기본 원리*(2009년), 5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232쪽.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언제나 동참해왔다. 나부 시절,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매주 모임에서 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해 보고하고 돈, 물건, 재능, 시간을 기부하여 사람들을 돌보았다.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더는 일을 기본으로 삼는 상호부조회의 사업은 세대에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밸리에 도착했을 때,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자매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스스로를 돌보기 위한 기술을 배우라고 권고했다. “자립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근이 닥칠 날을 대비해 곡물과 밀가루를 비축하십시오.”³ 신권 지도력에 따라 상호부조회는 끊임없이 자립에 대해 가르치고, 가족을 보호하며, 의로움을 키우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애를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성구에서

요한복음 13:34~35; 야고보서 1:27; 모사이야사 4:26; 교리와 성약 29:34~35; 38:30; 44:6



작고 단순한 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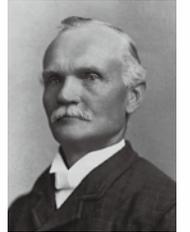
세계 교회 역사 탐방

독일

독일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된 시기는 1840년대이지만 1851년이 되어서야 첫 개종자가 나올 수 있는 두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 그 해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해 있던 존 테일러 회장은 물론경 독일어 번역 작업을 감독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함부르크로 갔다. 1852년에 함부르크에서 지부가 조직되었지만 초기 개종자들은 대부분 박해를 피해 유타로 이주했다. 그 이주민 중 한 사람인 칼 지 마에세르는 이후에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아카데미 총장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특히 1921년부터 1925년 사이에 독일에서 교회 개종자가 크게 증가했다. 독일 선교부는 독일-오스트리아 선교부와 스위스-독일 선교부로 나뉘었다. 1937년에는 독일 동선교부가 새로 조직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에도 독일에서는 많은 선교사가 배출되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1947년에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선교 사업은 계속되었으며, 1985년 6월 19일에는 공산주의 국가로는 처음으로 동독에서 프라이베르크 성전이 헌납되었다. 2년 후에는 서독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성전이 헌납되었다. 독일은 1990년에 통일되었다.



조국 독일을 떠나 유타로 이주한 칼 지 마에세르는 1860년에 유타에 도착했다.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 1985년에 헌납.



위: 독일 뮌헨 정경. 아래: 1987년에 헌납된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



독일 교회 현황	
회원	38,204명
선교부	3개
스테이크	14개
와드 및 지부	173개
성전	2개

복음이 우선입니다

선 교사들이 사모아에서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 복음을 가르쳤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사모아 사람들이 따르는 전통적인 믿음과 종교 관습 몇 가지를 버려야 하셨다. 우리 가족은 사모아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할아버지의 모범을 보고 복음이 우선임을 배웠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사모아에서 흔히 하는 부족 전통인 줄무늬 문신과 즐겨 먹는 음식 몇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교회 가르침에 맞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발을 들이지 말거라. 너는 사모아 사람이기 이전에, 또 섬나라 출신의 크고 건장한 청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을 늘 기억했다.

지금 나는 아내와 함께 코스타리카에 산다. 어디나 그렇듯이 이곳에도 교회 가르침에 맞지 않는 전통과 문화 예절이 존재한다. 이런 관습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종종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 모건 사 마타알리, 코스타리카

MORMON.ORG에 소개 글을 올리세요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은 Mormon.org에 소개 글을 올려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소개 글을 보고 교회에 관해 회원들로부터 직접 배울 것입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소개 글을 쓰고 간증을 나누세요.

1. Mormon.org/create에 접속하십시오.

후기 성도 계정으로 로그인하십시오. 후기 성도 계정이 없다면 회원 기록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등록하십시오. 회원 기록 번호는 성전 추천서에 있으며, 와드나 지부 서기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다음 영역에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내 소개, 내가 몰몬인 이유, 신앙대로 생활하는 방법, 자주 하는 질문, 개인적인 이야기, 추가 정보.

3. 소개 글을 올릴 때에는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친숙하지 않은 표현은 피하십시오. 예를 들어 “저는 상호부조회에서 우리 시대의 가르침을 담당하는 교사로 봉사합니다.”라고 쓰는 대신 “저는 한 달에 한 번 성인 여성들에게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르칩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4. 사진과 이름, 간단한 소개 글을 올리십시오. 소개 글을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 계정 등과 연결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이나 거주하는 도시명 등과 같은 자세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 글을 다 쓴 후에는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보냅니다. 승인을 받으면 홈페이지 방문자는 여러분이 등록한 간증을 읽을 수 있고 교회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장들에 관한 짧은 문제

아 래에 나오는 설명과 그와 관련된 교회 회장의 이름을 연결시켜 보세요.



1. 선글라스. 이분은 유타 지역에 세워진 여러 정착지를 방문하면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2. 중산모자. 이 선지자는 외모와 품행이 세련되기로 유명했으며, 이 모자에서 그 명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 훈장 메달. 이분은 미국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대통령 내각에서 농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룬 공적으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4. 복지 물품 교환권. 이분은 대공황 시기에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끌었습니다.

5. 말 안장. 이 선지자는 소니 보이라고 부르던 자신의 말을 무척 아꼈습니다.



6. 일지. 이 선지자는 교회 역사를 보존하는 일에 헌신했으며, 그분이 남긴 기록은 가장 가치 있는 교회 역사물 중 하나입니다.

7. 브리검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 사진. 이분은 예루살렘 센터를 지을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협상을 했습니다.



8. 초소형 마이크. 이분은 여러 차례 후두암 수술을 받고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어서 이 장치를 안경에 걸어서 썼습니다.

A. 조셉 스미스 이세(1805~1844)

B. 브리검 영(1801~1877)

C. 존 테일러(1808~1887)

D. 윌포드 우드럽(1807~1898)

E. 로렌조 스노우(1814~1901)

F.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G.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H. 조지 앨버트 스미스(1870~1951)

I.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J.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K. 해롤드 비 리(1899~1973)

L.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M.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N.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O.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P. 토마스 에스 몬슨(1927~)



9. 지팡이. 이분은 노년에 지팡이를 사용했는데,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이 지팡이를 들어 올려 정답게 흔들었습니다.

10. 십일조 명세표. 이분은 십일조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11. 지붕 위의 바이올린. 이분은 문학을 사랑하여 이 고전작품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12. 타자기. 이분은 교회에서 매우 많은 저술을 남긴 작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3. 검. 이분은 나부 군단 지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14. 화환. 이 선지자는 하와이에 처음으로 파견된 선교사 중 한 사람이었으며 선교 사업을 위해 열다섯 살에 하와이로 갔습니다.



15. 회중시계. 이 물건은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가 일어난 날,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입니다.



16. 스카우트 실버 버팔로상. 이분은 교회에서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평의회에서 받은 축복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수년 전에 제가 감독으로 봉사하던 시절, 저희 와드에는

가장이 실직을 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도 나누고 도움을 주겠다는 교회의 제안도 전할 겸 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가족들은 잠시 동안 도움을 주겠다는 교회의 제안에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와드 평의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훌륭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비밀에 부치는 가운데, 평의회와 함께 그들에 대한 염려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님은 그 집 어머니를 방문하여 당분간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파악하고 함께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보겠다고 자원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 프로그램상 그분이 맡은 책임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자매님은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셨고, 그 가족은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물품 지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님은 자신에게 있는 권한과 의무에 따라 그 집 가장과 상의하셨고, 직장을 구할 방법을 함께 강구하셨습니다. 또 청남 회장님은 그 집에 페인트칠이 시급하다는 것을 눈치채시고는 제사들이 대제사 그룹 형제님들과 함께 페인트칠을 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부부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들에게 꽤 많은 빛이 있으며 대출금도 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승인한 복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강화하십시오

“와드 평의회 구성원은 자기 조직에 속한 회원들의 필요 사항과 복지, 영적 발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문제에 직면하거나 상황에 변화가 있는 회원들의 상황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알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강화해 줄 수 있다.”

지침서 제2권과 2010년 및 2011년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은 LDS.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Menu”를 클릭하고 “Serving in the Church”를 클릭합니다.

지침에 따라 그들의 확대 가족이 도움을 줄 형편이 되는지 알아보았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호부조회 회장님은 그 자매님에게 부유한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님은 “오빠에게 연락할 명분이 없어요. 서로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이 곤란한 처지라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저는 교회 방침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과 의논했고 결국 먼 곳에 사는 오빠에게 연락해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저는 오빠 분에게 전화를 걸어 여동생이 처한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솔트레이크시티로 찾아와서 동생이 처한 재정 문제를 바로잡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동안 장로 정원회 회장님은 그 자매님의 남편이 수입이 좋은 안정된 직장을 찾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가족으로서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소원하게 지내온 남매가 재회하는 감동스러운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오빠는 교회에서 멀어진 상태였지만 그 자리에서 영과 영으로서 끈끈하게 교감했습니다. 그 결과 오빠는 결국 교회에서 다시 온전하게 활동하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는 새로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 자녀들을 돕고자 마련하신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충실한 와드 평의회가 영감을 받아 일한 덕분입니다. ■

Counseling with Our Councils(1997년), 15~17쪽에서 발췌.

나의 슬픔을 지신 그리스도



역경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재난을 겪고 나서 성격이 냉소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면 그러한 역경이 우리를 영적으로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깨달게 될 것입니다. 역경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과 영적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은 우리가 그곳에 닿도록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 *Treasures of Life*, comp. Clare Middlemiss(1962년), 107~108쪽.

“실로 그는 우리의 비애를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을 졌거늘”
(모사이야서 14:4)

제인 블리크

20 09년에 나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여름과 가을을 보냈다. 6월 9일, 치매로 10년 넘게 고생하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6월 25일에는 스물두 살 난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한 달도 채 안 되어 사촌도 세상을 등졌다. 8월 13일에는 여든두 살 되신 어머니께서 심장 개복수술을 받으시고 꽤 시간이 필요한 회복기에 접어드셨다. 10월 18일에는 마흔한 살 된 남동생이 숨졌고, 10월 31일에는 남편이 격심한 심장마비로 8분 동안 심장이 멎는 일이 일어났다. 다행히 소방관과 의사들 그리고 신권 축복 덕분에 남편은 의식을 찾았다.

사람들은 종종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견뎌 냈느냐며 묻는다. 나는 구주께 의지했고 그분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고 한결같이 대답했다. 시련을 겪을 때 구주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나는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고 보살핀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분께서는 실로 “[나의] 비애를 담당[하셨다.]”(모사이야서 14:4)

가족과 친구, 와드와 스테이크 회원들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사랑을 담아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었다. 열세 살 난 손녀 크리스탈은 내 아들 마이클이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 크리스탈은 편지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살펴 주고 계세요.” 크리스탈이 준 편지를 읽고 교리와 성약 84편 88절에 나오는 구절이 떠올랐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이 전하신 “주님을 신뢰함”이라는 말씀을 읽고 힘을 얻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종종 모든 일이 순조로운 듯한 상황에서 여러 시련이 한꺼번에 옵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한 결과로 온 시련이 아니라면, 그 시련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더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장과 이해와 동정심을 자극하는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은 영원토록 지속될 유익을 위해 단련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위치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위치까지 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거기에는 대개 곤경과 고통이 수반됩니다.”(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16쪽)

스코트 장로님은 “왜 이 일이 내게



겻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간구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다.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곧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44 참조)

일어나지?” “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와 같은 질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보다는 “이 경험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까?” “시련을 겪는 동안 내가 받은 많은 축복들을 어떻게 기억하지?”와 같은 질문을 하라고 권고하셨다.

나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유혹을 이겨 냈다. 그 대신 시련을 겪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간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무거운 마음을 치유하도록 도와주셨으며, 내 주위에 있는 좋은 것들을 깨닫도록 북돋아 주셨다. 또한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동정심을 느끼며,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도와주셨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간증을 얻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하나를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방법대로 정화되고 단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슬픔에 대처하는 방법

-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사야 53:3)이시고 속죄를 치르시면서 우리의 슬픔도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 우리는 “왜?”라고 묻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위해 애쓰고, 그 대신 주님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다.
- 우리는 시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릴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잠언 3장 5~6절과 조셉 비 워스린, “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28~30쪽을 참조한다.

우리는 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가 전한 연차 대회 말씀인 “주님을 신뢰함”(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16~18쪽)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1.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신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시련을 견딘다면 그분께서 도와주시리라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2.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승영에 도달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¹
3. 시련을 극복하는 것도 그 계획 중 일부이다. 시련을 극복하면 힘과 이해력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얻는다.²

시련을 극복하려 애쓰는 사람에게 스코트 장로가 전한 “주님을 신뢰함”이라는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주

1. 복음 원리(2009년), 10~11쪽 참조.
2. 복음 원리, 17~21쪽 참조.

신 권 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입니다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 지니신 영원한 권능으로 우주는 완전한 질서를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 그분의 권능과 권세 일부를 교회에 있는 합당한 남성 회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이렇게 위임된 권세를 신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위임하는 방식은 신약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마태복음 16:19 참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지상에도 그러한 방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침례와 확인, 성찬 집행, 성전 결혼과 같이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행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충실한 후기 성도 남성과 여성과 아이들은 신권 의식을 받아야 하며 의식을 받을 때 사람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신 권 직 분

신권은 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으로 나뉩니다. 멜기세덱 신권에는 아론 신권보다 더 큰 권세가 포함됩니다.

이 두 신권에는 특정한 직분, 다시 말해 특정한 책임 영역이 있습니다. 아론 신권 직분에는 집사, 교사, 제사,

감독이 있으며, 멜기세덱 신권 직분에는 장로, 대제사, 축복사, 칠십인, 사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정원회 또는 그룹으로 조직됩니다. 각 직분에는 할당된 의무가 있습니다.

신 권 열 쇠

열쇠라는 말은 교회에 있는 특정 단위 조직, 즉 특정 담당 구역을 감리하는 권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와 와드에서는 스테이크 회장, 감독, 정원회 회장들에게만 신권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그것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신권 소유자가 베푸는 안수례를 통해 받습니다.

-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들의 회장들은 회장단의 열쇠를 받고 영적인 일을 집행하는 열쇠를 받습니다.(교리와 성약 107:10, 18~19 참조)
- 아론 신권 정원회들의 회장들은 천사의 성역을 베푸는 열쇠와 침례나 성찬과 같은 의식을 수행하는 열쇠를 받습니다.(교리와 성약 107:20 참조)
- 교회 전체를 총괄하는 모든 신권 열쇠는 교회 회장에게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1:1~2 참조)

멜기세덱 신권 직분과 그 직분에 따르는 몇 가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로는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온 자를 경전에 따라 불과 성신의 침례를 위하여 안수로서 확인”합니다.(교리와 성약 20:41)



아론 신권의 직분과 그 직분에 따르는 몇 가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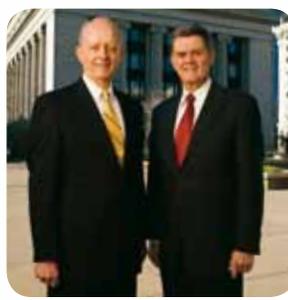
2. 대제사는 “영적인 일을 집행하며”, 장로, 제사, 교사, 집사 직분을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07:12)



3. 축복사는 축복사의 축복을 줍니다.(교리와 성약 107:53; 124:91~93 참조)



4. 칠십인은 복음을 전파하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됩니다.(교리와 성약 107:25, 34 참조)



5. 사도는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으로 봉사합니다.(교리와 성약 107:23)



1. 집사는 성찬을 전달합니다.



2. 교사는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힘을 복돋아” 줍니다.(교리와 성약 20:53)



3. 제사는 “설교하며, …… 침례를 주며, 성찬을 베풀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합니다.(교리와 성약 20:46~47)



4. 감독은 제사 정원회의 회장이며, 대제사로서 와드에 있는 모든 회원을 감리합니다.(교리와 성약 107:87~88 참조) ■

“그것의 의식과 그 신권의 권세 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나니”(교리와 성약 84:21)

사진 출처: 이현규, 웬트 시 멘디스, 매튜 라이머, 루스 시무스, 크레이그 데이먼드, 존 루크

마크 엘 그로버

“하

나님께서는 제가 간구한 축복을 모두 주셨어요.” 아내 데보라가 한 말이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이 말이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을 쫓 지켜보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말이 놀랍다. 데보라가 7년 동안 전신성 루푸스(신체 여러 부위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오키이)로 고생하고 2년간 유방암으로 투병하다 마침내 1990년 9월 19일에 세상을 떠난 일을 아는 사람들도 모두 놀랄 것이다. 나는 신권을 소유하고, 신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힘겨운 방법으로 배웠다.

부모님께서도 모두 교회에서 활동 회원이셨고 가르침에 충실하셨지만, 나는 어린 시절에 특별히 신권을 통해 영적으로 영향을 받은 기억은 없었다. 축복이 필요할 만큼 아픈 기억도 없고, 가족 중 누가 신권 축복을 받은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신권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채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겼기에 그 영향은 우리 가족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나는 누군가 심하게 앓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신권

축복을 주는 일을 힘겨워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속마음을 뒤로 한 채, 영적으로 더 많이 도와 달라는 말을 아꼈다.

1989년 3월, 의사가 아내에게 암 진단을 하고 나서 우리 삶은 바뀌었다. 아내에게 생긴 암은 매우 희귀했기에 의사들은 2년 동안 발견하지를 못했었다. 그러한 진단이 내려졌을 때에는 이미 암세포가 퍼져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임을 깨달았고, 우리는 영적인 도움에 더욱 의지했다. 와드에서는 데보라를 위해 금식을 했다. 상호부조회에서 주는 도움도 고맙게 받았다. 아내의 투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데보라가 받기로 한 화학 치료를 이미 견뎌 낸 경험이 있는 한 친구는 치료가 가장 힘든 시기에 다다랐을 때 신권 축복을 받았다고 말해 주었다. 친구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이겨 내기 위해 자신처럼 영적인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화학 치료는 힘들었다. 아내는 예상한 증상을 모두 겪었다. 치료가 끝나고는 며칠을 앓았다. 대부분의 날들을 침상에서 보냈고 먹는 것도 곤욕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시련을 최선을 다해 극복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 나갔다.

신권 축복,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다

축복을 주었다. 아내에게 마음의 위안이 필요할 때 몇 차례 축복을 주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다.

물론 축복을 줄 때마다 나는 늘 좋은 경험을 했다. 그러나 신권 축복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자신도 없었기에 그러한 신권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찢찢맷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가 전신성 루푸스 진단을 받아 상황이 좀 달라졌다. 병마에 기력이 쇠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아내에게 이따금 주는 신권 축복은 유일한 도움이었다. 아내는 내가

이 힘겨운 나날에 아내는 친구가 조언한 대로 내게 신권 축복을 부탁했다. 나는 화학 치료 첫 주에 불안해하는 아내를 위로하고자 축복을 주었다. 신권 축복으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다소 누그러졌다. 아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자 오랫동안 계속되던 구토가 멈추었다.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지만 잠도 잘 수 있게 되었다. 이 축복으로 우리는 도움과 위안이라는 약속을 받았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았다. 우리에게 따스함과 기쁨이 차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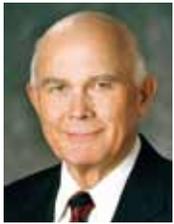
그 시기에 축복을 주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으면 좋았겠지만, 실은 그렇지 못했다. 나는 부탁받은 축복을 주었을 뿐 신권을 행사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했다. 불편한 마음을 아내에게

비록 우리가
가장 바랐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축복이 성취되었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아내는 내가 망설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투병은 실로 고된 시련이었다. 아내는 자신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도움을 줄 통로 구실을 할 사람을 바로 나라는 점을 알았다. 그래서 아내는 도움이 필요하면 내게 부탁을 했다.

나는 늘 축복을 주려 손을 올리기 전에 이미 내가 어떤 축복을 주고 싶은지를 먼저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행사할 때, 신앙에 찬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신앙과 신권의 병 고치는 권능이 신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교회 장로들이 아픈 사람에게 안수해야 한다는 계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어 병 고침을 받으리라’는 신앙이 있고 죽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자는 병 고침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42:48)”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병 고침”,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50쪽.

완쾌하도록 축복하고 싶었다. 아내도 그 축복을 원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은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은 위안이었다. 시련은 가시지 않았지만 덕분에 한결 쉽게 견딜 수 있었다.

나는 신권과 신권 축복을 주는 일에 관해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다. 축복을 주는 일은 내 바람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얻는 방편이다. 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보다는 주님과 주님의 뜻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은 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축복을 주는 일이 결코 쉬워지진 않았지만 축복을 줄 때 받은 느낌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

데보라가 치료를 마친 후 우리는 약물이 효험이 있기를 기다리는 힘든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의사와의 약속도,

검사도, 치료도 없는 이 시간을 만끽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독성이 강한 항암제를 그렇게나 투여했는데도 암세포 일부가 살아남아 다시 퍼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조금씩 나타나는 사소한 징후들에서 우리는 가장 우려한 일이 실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치료는 실패했다. 의사들은 낙관했지만 우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인생에서 마지막 6개월여를 보내면서 데보라는 믿기 힘들 만큼 평온했다. 마지막 시술이 실패하자 우리는 치료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로 했다. 그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내 생애 가장 멋진 날들이었다.

그때, 걱정이 된 친구들과 가족들은 데보라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 더 간곡히 간구해 보라고도 했다. 내게 신권이 있으니 신권으로 데보라를 낫게 하라는 말도 했다. 마음은 헤아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데보라에게 삶을 약속해 주고 싶었다. 그러나 축복을 줄 때 그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데보라도 건강에 대한 축복을 가장 절실히 바랐을 테지만 그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기적을 믿었다.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계획에 따라 겪는 일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점도 알았다.

더 큰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데보라는 신권 축복에서 삶을 약속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받았다. 고통이 누그러지리라는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힘든 투병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함께하며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었지만 자녀와 영원히 결속되리라는 확신을 얻었다. 데보라는 가족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큰 고통이나 통증 없이 세상을 떠났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무척 아끼신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에게 힘과 이해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위안과 도움을 주신다. 인생은 힘들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시련에 처할 때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신권 축복이다. 아내도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간구한 축복을 모두 주셨어요.”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 ■

의로운 모범의 힘

제리 스트링컴

19

92년 4월, 내가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공학 학위를 수료하는 동안 가족과 나는 캐나다를 떠나 유타 프로보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지냈다. 그곳에서 열일곱 살 난 아들 제이스는 크리스타라는 소녀와 친구가 되었다.

연차 대회가 열린 토요일 저녁, 제이스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크리스타와 밀크셰이크를 마시러 가겠다고 차를 써도 되느냐고 물었다. 내가 열쇠를 던져 주자, 아들은 크리스타에게 전화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상대방 소리는 들리지 않고 제이스 목소리만 들려왔다.

“안녕? 크리스타, 나야 제이스.

밀크셰이크 마시러 가지 않을래?” 그 말을 한 후

제이스는 한동안 **말없이** 들고만 서 있었다.

그러다 이내 “신권 모임 끝나고 나서 말이지? 그래,

알았어. 그럼 그때 전화할게. **안녕.**” 하고 대답했다.

제이스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다.

“그럼 크리스타랑 외출하는 거니?”

“그리고

싶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제이스는 이 말을 덧붙였다. “신권 모임에 다녀와서 다시 전화하래요.” 그러더니 허탈한 얼굴로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간, 뒤통수를 세계 얻어 맞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스테이크 센터에서 13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앨버타 남부에서 자랐다. 나는 물론이고 지부에서 지도자이셨던 부모님조차도 신권 모임은커녕 연차 대회 모임에 내가 참석하기를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내 아들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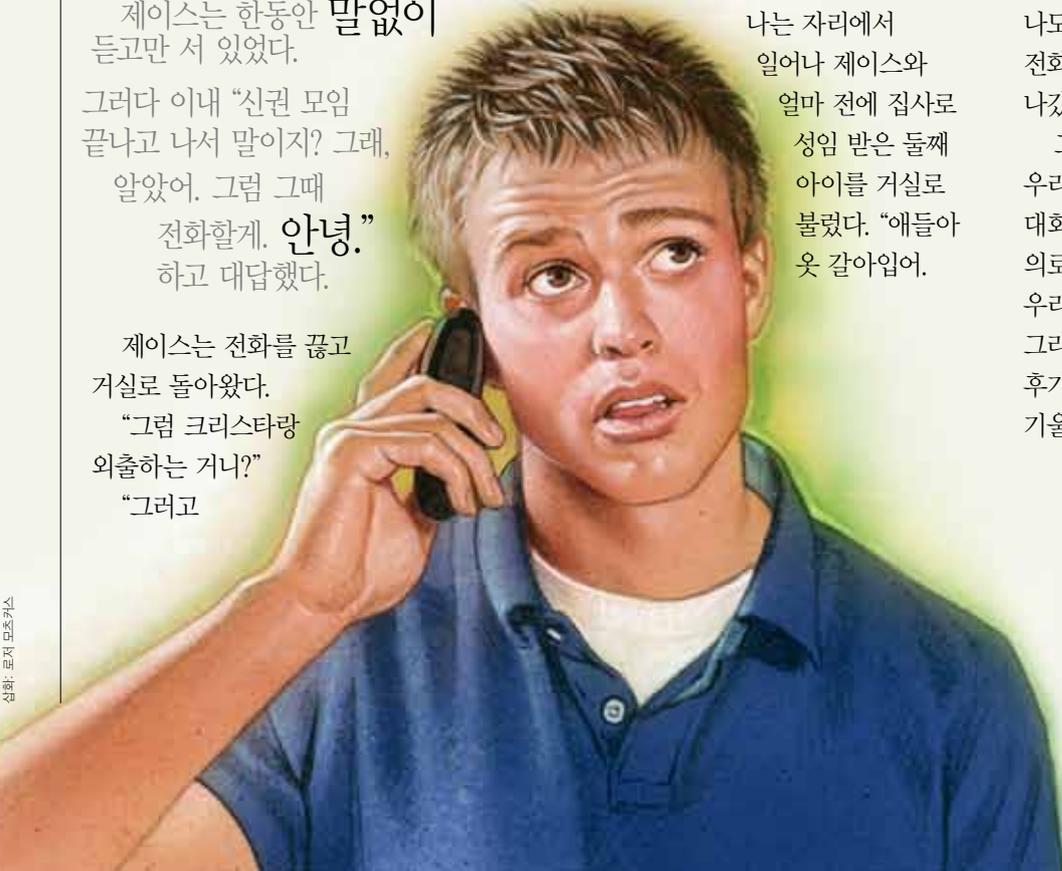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우울한 모습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날을 좌우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이스와 얼마 전에 집사로 성임 받은 둘째 아이를 거실로 불렀다. “아들아 옷 갈아입어.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리는 신권 모임에 가려면 10분밖에 안 남았어.” 서둘러 채비하고 침실에서 나왔더니 두 아들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우리는 차로 향했다.

그날 들은 말씀은 거의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영을 느꼈던 것만은 기억한다. 두 아들과 함께 신권 모임에 참석하니 흐뭇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이스는 스스로 흡족해했고 그런 아들을 보니 나도 뿌듯했다. 제이스는 크리스타에게 전화해서 함께 밀크셰이크를 마시러 나갔다.

그날 이후 이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 집 신권 형제들은 한 번도 연차 대회 신권 모임을 빠진 적이 없다. 한 의로운 청년이 굳건히 신앙을 지킨 덕에 우리 가족은 변화할 기회를 맞았다. 그리고 여전히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후기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영을 느낀다. ■



후기 성도 결혼관



휴 비 브라운(1883~1975)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휴 비 브라운 회장은 1883년 10월 24일 유타 주 그레인저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8년에 사도로 성임되었으며, 8년 동안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보좌로 봉사했다. 이 글은 브라운 회장이 저술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결혼*에서 발췌했다.

결혼은 성례(聖禮), 즉 성스럽게 집행되어야 하는 의식입니다.

성례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기독교에서는 올바른 권세를 받은 사람이 엄숙히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을 의미합니다. 곧 맹세, 혹은 엄숙한 성약이며, 계약을 맺는 당사자 간에, 그리고 두 남녀와 하나님 사이에 맺는 영적인 표시 또는 계약입니다. 다음 기록들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직접 결혼을 제정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창세기 2:18, 24)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이혼에 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짜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9:4~6)

결혼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몸소 이 첫 번째 결혼을 집행하심으로써 결혼이라는 제도를 승인하셨습니다. 결혼은 일반적이고 유익하며 바람직한 의식으로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결혼은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관습과 민법으로 규제하는 사회 제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도덕률에 따라 맺는 계약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자녀들에게 지상에서 필멸의 생활을 하게 하고 불멸과 영생을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결혼이란 남성과 여성이 주님께서 공언하신 그 목적에 협력하겠다고 엄숙히 맹세하는 종교 성례를 말하며,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결혼 성약 밖에서 가장 현신적이며 바람직한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런 사람들은 가장 높은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결합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리에 대한 근거는 경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잠언 18:22)

또한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49:15)

성전 결혼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후기 성도는 가장 훌륭한 삶을 이루고 현세와 다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행복을 얻으려면 남성과 여성이 현세와 영원을 위해 성전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전 결혼으로 인봉 의식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거나 충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

후기 성도에게는 오직 한 가지 결혼만이 인정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성전 안에서만 집행되는 해의 왕국의 결혼, 즉 성전 결혼입니다. 우리는 영적이고도 영원한 의례와 의식을 행할 장소로서 성전을 세우고 주님께 거룩히 헌납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 성직자나 공무원, 혹은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집행하는 일반 결혼식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마태복음

16:19)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권세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권세는 경전에서 “천국 열쇠”(마태복음 16:19)라고 언급되었으며, 해의 왕국의 결혼에서는 이 열쇠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욕구가 온전히 실현됩니다

사람은 도덕적, 사회적, 생물학적, 영적인 욕구와 같은 기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

주님께서 정하신 제도인 영원한 결혼을 통해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후기 성도는
가장 훌륭한
삶을 이루고 현세와
다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행복을
얻으려면 남성과
여성인 현세와
영원을 위해 성전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영원하시듯 사랑도 영원하며 사랑이 맺는 열매와 축복도 영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 연관이 있는 만큼 영원한 사랑이 주는 특권과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승인하고 신성화하는 의식도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제한이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 관계와 부부 사이의 연합이 영원하려면

결혼 서약에 엄연히 “현세와 영원까지”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손에 대해 그리고 자손에 관해 맺은 성약에 대해 자신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교리와 성약 128:18)라고 하신 말씀은 그 연결 고리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는 사슬임을 나타냅니다.

사실 우리는 조상보다

이생에서 맡고 있는 자녀에 대해 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안 해서 죄를 저질렀든 아니면 반대로 무언가를 해서 죄를 저질렀든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있습니다.

이생과 이후에 올 영원한 삶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하며, 봉사하고, 희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10).

결혼에 담긴 가장 위대한 가치는 남성이나 여성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에는 태초에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세기 1:28). 올바른 결혼 생활 속에서 인간에게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자연적 욕구를 자각할 기회가 옵니다. 우리는 결혼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이 욕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으며 적절히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에게서 태어난 자녀,

즉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의 아버지이시며, 영원한 원소와 영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전세에서 현명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이루는 세 번째 당사자이십니다. 거룩하게 허가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녀를 지상에 데려오는 일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입니다.

결혼의 영원한 속성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두 가지 큰 계명으로 꼽으시며 사랑을 찬미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따라서 후기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이루는 세 번째 당사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거룩하게 허가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녀를 지상에 데려오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결과 그들이 실패한다면 그 죄는 우리 머리 위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해의 왕국 중 가장 높은 등급에 이르는 이들이 받는 축복 한 가지는 영원히 변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에 계속해서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진보합니다

후기 성도에게 영원한 진보란 지식과 힘과 예지와 인식,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모든 성품과 능력을 끝없이 개발하고 키우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은 미완성의 상태, 혹은 결혼하지 않은 채로 영원히 완전해지는 상태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즉 자신의 반쪽을 찾아 연합한 인간은 성장하고 변성해야 합니다.

성스러운 관점에서 결혼을 보게 하는 이 결혼관은 결혼에 관한 견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성과 위엄과 영광을 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다면 사려 깊은 사람은 영원한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에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영원한 계약을 맺기 전에 남성과 여성은 겸손하고 사려 깊어야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오는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두 남녀가 마음속에 같은 목표를 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즉 반드시 같은 종교를 따를 경우에, 결혼 관계에 깃든 종교적인 신성함과 구속력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에서 성스러운 의식을 받기에 적합하도록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남녀는 배우고, 성약을 맺으며, 제단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켜보는 그곳에서 서로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신의를 맹세합니다. 그에 따르는 의무들과 그리고 참으로 이러한 결혼관과 의식을 통해 가정은 영원한 것이 되고, 결혼은 영광스러운 제도가 되며, 인간의 영혼은 구원을 얻습니다.

신앙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혼은 본질적으로 신앙을 바탕으로 하며 훌륭한 동반자가 함께하는 가운데 엄숙히 치러집니다. 역경과 시련, 실망, 때때로 마주치는 불행 앞에서도 끝까지 견뎌 내려면 신앙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영원한 동반자 관계와 그에 따른 조건과 의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 없다면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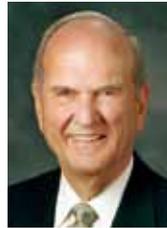
것에서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방면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지 영원한 성약으로 받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한다면 해의 영광을 상속받지 못하는 끔찍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결혼 서약을 맺은 동반자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니라.

그러나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여 그들 둘이 한 몸을 이룸은 적법한 일이니, 이 모든 것은 땅이 그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게 하려 함이요,

또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의 사람의 창조에 따라 그 수로 가드 차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9:15~17) ■

소제목 추가. 구두점, 대문자를 현대어법에 맞게 수정.



누구에게도 제한되지 않은 축복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은

교회회의 많은 성인

회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의 시련을 혼자서 감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방법과 시간에서 그의 충실한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각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해의 왕국의 결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94쪽.



정말이지
그만두고 싶었다

익명

나는 어떻게 외설물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외설물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몸부림은 사람들이 부적절한 매체와 행동들을 알려 준 청소년기에 시작되었다. 당시에 복음은 내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가족이 교회에 나가지만 열서너 살 무렵에는 전혀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의 가르침은 내가 결정을 내리는 데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과 소위 친구란 아이들이 알려 주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릴 생각은 해 보지도 못했다. 내가 보고 경험한 일을 입에 담기가 무척 민망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다. 그 후로도 수십 년간 내가 외설물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복음이 미친 영향

고등학교 졸업을 몇 달 앞두고서 내 삶의 전환점이 된 기적 같은 작은 일이 일어났다. 복음 표준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일요일 아침에 나는 교회에 가서 십일조를 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고 이를 따랐다. 집회소에 다다르자 나는 전에 알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지 물어보았다. 찾으려는 사람 중에는 마지막으로 교회에 참석하던 시절, 내가 집사였을 때 청년 회장이셨던 분도 있었다. 그분은 그때 워드 감독으로 봉사하고 계셨다.

이 훌륭한 감독님은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셨다. 죄를 고백하자 그분은 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계획을 세워 주셨다. 나는 몇 달에 걸쳐 회개했고, 신권 승진을 했으며, 부름도 받았다. 정말 잘 해낸 덕에 선교사

부름장도 받았다. 그렇게 몇 년간 나는 중독을 억제하며 지냈다.

뗏에 걸려들다

선교 사업에서 귀환하고 나서는 외설물로 허우적거릴 일이 없었다. 접할 일이 없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나는 우연히 인터넷에 있는 외설 사진을 보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뒤로 몇 달간 계속 음란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다. 뗏에 걸리고 만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부모님께 이야기한단 말인가? 그토록 많이 발전해 왔는데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었노라고 어떻게 감독님께 고백한단 말인가? 정말이지 나는 그만두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약점이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결국, 중독에 대한 사실을 내 가슴속에 담아 두었다.

심지어 2000년에 결혼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교제할 때부터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나를 경멸하지는 않을까, 아니 청혼마저 거절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결혼 생활 내내 이어졌다. 나는 들키지 않으려고 교활하게 행동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사진을 컴퓨터에 감춰 두었다. 아내가 특정 인터넷 연결 주소에 대해 물으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잡아땀다.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것은 중독된 사람을 아주 능숙한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이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에 응어리가 지고 아내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내가 제일 중요시한 점은 내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겼지였다.

이런 이중생활로 영이 떠나 버렸기 때문에 나는 부정을 비롯한 심각한 죄에도 점차 무력해졌다. 아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인상을 받고는 그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빠져서린 후회를 하며 그간 저지른 일을 시인했다.

나빠져도 더 나빠질 수는 없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앞에 마주 앉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닌가. 아내는 나를 사랑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배신한 것이다. 그때 나는 우리 관계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회복

나는 회개 과정과 교회 선도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감독님을 만나기 시작했다. 감독님은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중독 회복 프로그램 모임에 참석해 보라고 권하셨다. 처음 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알코올 중독자 방지회에서 실행하는 12단계를 교회 교리와 원리에 맞게 수정한 프로그램 모임인데, 무료이며 비밀이 유지된다고 했다.

처음에 몇 번 모임에 참석할 때에는 사실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어. 외설물에 정말 중독된 것도 아니잖아.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감독님께서 격려를 받으며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석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죄나 나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경전 공부와
기도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단순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만 같은, 인터넷 외설물이나 도덕적 자제력 부족과 같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끔찍이 싫지만 그것을 떨쳐 낼 의지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도움을 구하고 겸손하십시오. 주님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며,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실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첫 발은 여러분이 내디셔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Be Strong in the Lord”, *Ensign*, 2004년 7월호, 12쪽.

자만심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프로그램의 열두 단계를 밟아 나갔다. 그 단계란 정직, 희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진리, 고백, 마음의 변화, 겸손, 사과, 보상과 화해, 일상의 의무, 개인적 계시, 봉사이다. 정말 오랜만에 나는 외설물 없는 ‘진지한’ 생활을 했다. 회복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맛보게 되었다. 이것은 12단계에 참여하면서 내가 중독된 배경이 무엇인지 깨달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삶에서 느끼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일종의 ‘자기 치료’에 의존한다고 한다. 그들은 고통, 슬픔, 외로움, 두려움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불안을 느끼면 그것을 계기로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고 이런 자기 치료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어떤 이들은 처방약을 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불법으로 구한 약을 쓰기도 하며, 술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내 경우에는 외설물이 일시적이고도 ‘효과 빠르’는 가짜 약이었다.

내 중독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아는 일도 중요했지만 중독을 부추기는 환경을 피하는 일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앞으로 평생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런 마음속의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저 둘러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는 없다. 사실 혼자 있을 때에는 전혀 인터넷을 쓰지 않는다. 광고를 보고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된다. 집에는 유선 방송도 나오지 않는다. 일하러 갈 때는 특정 도로를 피해서 간다. 부적절한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옥외 광고판이 그 길을 따라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때면 나는 아내나 감독님에게 가거나 기도를 드리며 힘을 간구한다.

중독 문제가 내 인생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예방 조치를 취하는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외설물 중독으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알기에 나는 이런 방어책을 게을리할 수 없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 일은 단지 나쁜 것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다. 좋은 것을 가까이하려는 꾸준하고도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2단계에 있는 몇 가지 단계들 덕분에 나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좋은 것을 가까이하게 되었다.

매일 눈을 뜨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으니 그것을 알려 달라고 간구한다. 유혹에서 멀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날그날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듯 기도한다.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온종일 마음에 품고 지내며, 매일 밤마다 다시 기도를 드린다. 이에 더하여 고결한 것에 생각을 집중하려고 매일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면 생활 속에서 영과 함께할 수 없다. 나는 혼자 남겨지고도 유혹을 견뎌 낼 만큼 강하지 못하다.

오랫동안 나는 정신력만으로도 언제나 내 행동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나는 참담하게 실패했다. 얼마간 노력해 본 뒤에 혼자서 노력하는 데 지쳐 버렸다. 특히 ‘혼자서’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더욱 그랬다. 결국, 주님께서 도와 주시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어서 12장 27절을 읽으니 더욱 이해가 갔다. 주님께서서는 모로나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니파이후서 25:23 참조) 주님께 나아가니 그분께서 도와 주시어 일도 더욱 잘 풀리고 내 상태도 훨씬 좋아졌다. 내 힘만으로는 꿈도 못 꿀 정도로 말이다.(앨마서 7:14 참조)



나는 현재 아내와 함께 중독 회복 프로그램 모임에서 도우미로 봉사한다. 아내는 속죄가 중독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상관 없이 중독에 영향을 받은 이들을 위한 것임을 배우고는 다른 사람들도 그 점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구주께 의지하면 우리 모두의 삶에는 그분의 은혜가 임한다.

나는 중독과 싸우는 이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구주 안에 있는 희망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그분께서는 말 그대로 죄라는 사슬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중독이란 마치 “사람의 자녀들을 결박하여 그들이 사로잡혀 비참과 고난의 영원한 심연으로 끌려 내려가게 하느니라” 사슬에 묶이는 것과 같다.(니파이후서 1:13) 내가 곤경에 처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막상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몰랐다. 궁지에서 헤어 나올 수 없어서 암담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구해 내실 수 있었다. 주님께 돌이키자, 그분께서 나를 도우시고자 그곳에 계셨다.

나는 암몬이 한 말을 공감한다. “과연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니,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약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겠고, 내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앨마서 26:12)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내도록 도와주실 수 있음을 안다. 중독이라는 사슬을 끊어 버리는 일까지도 말이다. ■

외설물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도움

후 기 성도 가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는 알코올, 약물(처방약과 불법 약물 포함), 담배, 커피나 차, 외설물, 도박 등에 중독되거나, 성적 이상 행동, 병적인 상호의존, 식이 장애와 같은 문제를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 모임이 있다. 이 모임은 비밀이 유지되며 무료로 운영된다.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모임을 찾아보려면 www.ldsfamilyservices.org를 방문한다.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에게 근처에서 열리는 모임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도 프로그램 학습 안내서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중독 회복 프로그램: 중독 회복 및 치유 지도서**(물품번호 36764 000)를 관리 본부 배부과에서 구하거나 www.recoveryworkbook.lds.org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CombatingPornography.org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 후원 웹사이트이다. 중독에 빠진 이들의 배우자, 부모, 신권 지도자들도 이곳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물품 번호 00460 320)는 외설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제작된 소책자이다. 이 책자는 파괴적인 대중매체를 인식하고, 외설물이 부르는 유혹에 맞서고 피하며, 외설물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을 논한다. 또한 회개, 육체의 신성함, 세상적인 영향력을 극복함에 관한 성구와 그 밖의 교회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교회 지도자와 가족들은 외설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이 책자를 나눌 수 있다. 이 책자는 관리본부 배부과에서 여러 언어로 구할 수 있으며 영어 수화로 된 DVD도 구할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한 다른 말씀과 기사는 www.liahona.lds.org에 게시되어 있다.

행복으로 향하는 참된 길

가족 생활과
직업에서 행복에
이르는 참된 길을
추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더 큰 의로움과 평안,
그리고 이해력과
자유를 가져다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선한 삶”을 사는 방법은 수 세기에 걸쳐 논의되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마르스 언덕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사도행전 17:18)을 만났습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최고의 선이 덕이라고 믿었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최고의 선이 쾌락이라고 믿었습니다. 교만했던 많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철학을 “야망과 부정한 행위를 …… 위한 구실”로 사용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내일이면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를 좌우명으로 삼는 쾌락주의자였습니다.¹

학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적 명상”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가리켜 “선한 생활”의 청사진이라 불렀습니다. 한 평론가는 뉴욕 타임스 서평란에 현대 철학자들이 “인간을 위한 선한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알맞은 균형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²

뉴욕 타임스에 실린 한 기사는 “결혼 생활의 행복은 한 사람의 안녕을 결정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직업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데” 할애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사회적 결정을 내리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하라고 대학들에게 촉구했습니다.³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의도된 것이기에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종착지가 될 것이다. 그 길은 정결하고, 올바르고, 충실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⁴

결혼에 관한 뉴욕 타임스 기사에 실린 취지와 선지자가 전한 낙관적인 말씀에서 저는 우리가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받은 유산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축복, 특히 여러분이 받은 유산에 늘 감사하십시오. 훌륭하신 부모님을 두는 축복을 받았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그 유산을 갚아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그 우물물이 솟아나는 근원을 잊지 말라”라는 오래된 중국 속담이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있습니다. 경전에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잠언에는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잠언 6:20) 위대한 독일 철학자 괴테는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의 부친이 남긴 유산은 빌려온 것이니,
그것을 새로이 가져다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⁵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것들을 얻기 위해 건설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헌신합니다

둘째로 행복의 토대가 되는 가족이라는 영원한 조직에 헌신하십시오. 세상 전반에는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원한



따뜻하고 의로운
가족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성취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조직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 자녀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큰 감동을 주는 몇몇 경전 구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자녀가 갖는 숭고한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자녀는 참으로 “여호와와 기업”(시편 127:3)입니다.

제가 20대일 때,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1873~1970)께서 결혼과 자녀에 관해 예언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당시 그분은 95세로, 생애 마지막 해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맥케이 회장님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깃드는 순수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것 가운데 하나이며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은 가장 숭고한 인간의 의무”라고 가르치셨습니다.⁶

맥케이 회장님은 그런 다음 이혼이 증가하는 상황을 염려하셨습니다. 1969년에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무귀책 이혼”이라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전에는 결혼 생활을 끝내려면 배우자의 부정이나 다른 극단적인 명분이 있어야 했습니다. 맥케이 회장님은

특히 결혼 제도가 위기에 놓인 현실에 크게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현 상황은 미국이 가진 위대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⁷

맥케이 회장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면, 진정 그 말씀에는 미래를 예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 현임 편집장은 그 이후로 일어난 일들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시간에 따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는 “이혼율이 1960년대 이후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도하면서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1960년에 5퍼센트이던 것이 현재는 35퍼센트로 증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따른 결과와 자녀에게 미치는 부작용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친부모 두 사람이 이룬 안정된 가정의 …… 성품을 형성하고, 양육하고, 가치관을 꾸준히 가르치고,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는 이상적인 통로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⁸

뉴욕 타임스 기사는 “현대 사회가 …… 물질적인 것에 관여하기를 좋아하고, 도덕적

및 사회적인 것에 관여하는 일에는
원초적인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현대 사회는
“영적으로 눈이 먼 측면”이 있게 된
것입니다.⁹ 맥케이 회장님께서 하신
예언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충실한 교회 회원들 대다수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누린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신앙과 확신을 갖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은 의로운 배우자를

찾도록 권고합니다. 따뜻하고 의로운
가족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성취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행복이 토대가 될 때 성공적인 사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그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의롭게 생활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건설적인 방법으로 참여합니다

셋째, 건설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참여하고 선을 위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경전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은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요한복음 17장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에 계실 적에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님은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악한 관습, ……
풍조, …… 어리석음, 그릇된 교리와
이론을 취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¹⁰ 이와 더불어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에 공헌하는 것은 곧
모범이 되고, 복음을 나누고, 부모님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과제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완수하려면 건설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참여해야 하고, 또 여러분도 그러고 싶을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거쳐 더 큰 왕국에 합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가르치셨듯이 “선택이 운명을 결정합니다.”¹¹

이런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쉽도록 설계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시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 앞에서도 우리가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의로움은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경전 여러 곳에는 의롭게 생활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교리와 성약 59:23)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참여할 것을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이를 전하십시오

넷째, 여러분이 받은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이 표준을 여러분과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직장을 구할 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용주가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족에 대한 헌신을 비롯하여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 주십시오.

저는 직장 생활 초기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탠퍼드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저는 한 법률회사에 취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회사와 관련이 있는 교회 회원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곳 변호사들은 인품과 능력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연이어 면접을

보고 난 후에 최고 선임 변호사와 다른 두 변호사가 저를 점심 식사에 데리고 갔습니다. 선임 변호사가 식전에 술을 한 잔 하면 어떻겠는지 물었고, 나중에는 와인을 좀 들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저는 두 번 다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제게 물었을 때에는 제가 후기 성도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이며 술이 들어간 음료는 마시지 않는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취업 제의를 받았으며, 몇 달 뒤에 그 선임 변호사는 술이 들어간 음료를 권한 것은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후기 성도 교회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사실이 제 이력서에 기재된 것을 보고서 제가 속한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할 경우에만 저를 고용하기로 결심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인품과 고결성에서 중대한 문제로 여긴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시절에 저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후기 성도임을 알리지 않으려 하는 몇몇 회원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솔직하게 말했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는 했습니다.

빛이 됩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십시오. 1960년대 중반, 아내와 제가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을 당시에 그곳 후기 성도 회원 수는 다른 곳에 비해 적었습니다. 게다가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은 약물 남용과 문란하고 사악한 온갖 일이 자행되는 중심지였습니다.

이를 걱정한 한 스테이크 회장은 과연 지도자들이 교회 회원들에게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 계속 거주하라고 해야 하는지를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질의했습니다.

당시에 선임 십이사도셨던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이 이 사안을 담당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그분은 신권 지도자들을 만나셨고, 주님께서는 회원들이 떠나야 할 곳에 성전을 짓도록 영감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이르셨습니다. 리 회장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1. 우리 마음과 가정에 시온을 만드십시오.
2.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십시오.
3. 성전에서 배우는 의식과 원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우리도 리 회장님께서 주신 권고를 따른다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성전에 초점을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교회와 그 가르침이 세상에서 잘 이해되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잘못 알려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께서 교회 회원들에게 신앙을 수호하고 그릇된 정보를 정정하는 일에 목소리를 높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인터넷이 만든 “새로운 매체”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¹² 의사소통 방법이 다양해지고 지구촌

곳곳에 회원이 거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무책임하고 부정확한 설명을 발견할 때, 후기 성도들은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고 교회를 옹호해야 합니다. 벨라드 장로님의 당부가 있는 이후로 있어 온 일들에 감사드리며, 저는 그분의 권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염원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족 생활과 직업에서 행복에 이르는 참된 길을 추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더 큰 의로움과 평안, 그리고 이해력과 자유를 가져다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에서 2010년 4월 10일에 전한 말씀.
영어 전체 원문은 <http://devotional.byuh.edu/node/416>에서 볼 수 있다.

주

1. Frederic W. Farrar, *The Life and Work of St. Paul*(1902년), 1:535-536.
2. Jim Holt, "A Word about the Wise", *New York Times Book Review*, 2010년 3월 14일, 12쪽.
3. David Brooks, "The Sandra Bullock Trade", *New York Times*, 2010년 3월 30일, A23쪽.
4.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5:134-135.
5. Johann Wolfgang von Goethe, *Faust*, Bayard Taylor 번역(1912년), 1:28.
6. David O. McKay, Conference Report, 1969년 4월, 9쪽.
7. David O. McKay, 1969년 4월, 8쪽.
8. Mortimer B. Zuckerman, "Family-Unfriendly Policies", *U.S. News and World Report*, 2007년 10월 5일, 72쪽.
9. David Brooks, "The Sandra Bullock Trade", A23쪽.
10. Joseph Fielding Smith, Conference Report, 1916년 10월, 70쪽.
11. 토마스 에스 몬슨, "승영으로의 초대", *성도의 빛*, 1993년 9월호, 4쪽.
12. 엠 러셀 벨라드, "인터넷을 이용하여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08년 6월호, 교회 소식 1쪽.



건설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참여하고 선을
위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십시오.

무사히 집으로 항해하여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인도 비사카파트남 어부들은 매일 바다로 나간다. 평소에는 파도가 잔잔하게 이는 평온한 바다에서 생선을 가득 싣고 돌아온다. 그러나 때때로 바다는 거칠어진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무시무시한 파도가 일면 어부들은 그저 무사히 항구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긴다.

비사카파트남에 사는 후기 성도 청소년들 역시 매일 세상으로 나간다. 평소에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얻는다.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인생에서 느끼는 기쁨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때때로 세상은 거칠게 돌변한다. 낙담하게 하는 일이 파도처럼 몰아치고, 유혹이 높이 일며, 의심이 영적인 하늘에 어둠을 드리운다. 그런 날이면 집이라 부르는 평화로운 안식처이자 항구로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긴다.

인생이라는 바다는 때때로 거칠게 몰아치기도 한다. 그러나 인도 비사카파트남에 사는 후기 성도 십대들은 집이라는 항구가 평화로운 안식처가 된다는 점을 안다.

벽에 걸린 사진들

후기 성도 청소년인 나가 부산 라트남과 파바니 코탈라 라트남은 부모님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산다. 마을에서는 멀지만 아버지가 일하시는 제강 공장과는 가깝다. 이 집에 걸린 사진들을 보면, 라트남 가족에게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 수 있다. 현관문 근처에 있는 책꽂이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하고 침실은 구주와 성진, 제일회장단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다.

파바니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진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그 사진들을 보며 눈을 감아요.”라고 말했다.

파바니는 누구나 가정을 평화로운 안식처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저는 늘 주변을 청결하게 정리해요. 그건 영이 이곳에 편하게 머물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지요. 책가방에는 항상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넣고 다녀요. 책을 꺼낼 때마다 볼 수 있게요.”

나가는 여동생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부모님과도 대화를 나누며 많은 조언을 구해요. 아버지는 지방부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항상 아버지와 의논하죠.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여동생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건





교회와 가족은 라트남 가족(34쪽),(맨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수지스 바싸, 산디프 바싸, 헵시바 바싸; 파바니 라트남, 나가 라트남; 부티 가족; 그리고 비사카파트남에 있는 세 지부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항구이기도 하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오토바이 한 대에 함께 타고 40킬로미터를 가야 했다. 아버지 침례식 때 파바니가 아파서 신앙으로 기도드린 일, 나가가 학교 시험 기간에 심하게 아파서 아버지께서 신권 축복을 주신 일, 아버지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어머니와 가족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시는 방식에 대해 그들은 이야기했다.

파바니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 가족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훌륭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부모님과 오빠는 막내인 저를 모범으로 이끌어 주죠. 저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제 주변에는 저를 돕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주께서도 저를 사랑하시죠. 제게는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랑은 특히 중국 홍콩 성전에 가서 가족이 인봉받을 때 빛을 발했다. 나가는 성전이 가장 안전한 항구라고 말한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을 떠올리기만 해도 집안에 거룩함이 깃들죠.” 그렇기에 라트남 가족이 사는 아파트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다.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오빠 나가에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 동생 파바니가 오빠를 위로한다. 나가가 내성적인 편이기 때문에 파바니는 오빠가 더 활발하게 어울리도록 돕는다.

나가는 “무엇보다도 표준을 지키도록 서로 격려합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파바니는 정숙한 복장에 관해 나가에게 조언을 구한다. “오빠가 생각하기에 교회 표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면 저는 그 옷을 입지 않아요.” 또한 파바니와 나가는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관해 종종 이야기한다. 그런 토론에서 나가는 심장병 전문의가 되고 싶은 꿈을 키우게 되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봉사도 할 수 있었으면 해요.”

파바니와 나가는 가정에 신권이 있기에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파바니와 나가는 8년 전에 아버지가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일을 떠올렸다. 네 가족은

경전에서 찾는 안전

비삭(주민들이 비사카파트남을 일컫는 말) 시내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헵시바 바싸와 산디프 바싸, 수지스 바싸는 경전을 평화로운 항구에 머물게 하는 닻이라고 말했다. 헵시바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경전을 읽으면서 영으로 인도되어 올바른 길을 걷고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요. 또한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를 하며 영이 집에 머물 수 있게 하죠.”

실제로 산디프 어머니는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매일 기도하라”라고 이르신다. 산디프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실 때면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고 싶어요.”

가정과 더불어 평화를 느끼게 하는 또 한 곳은 회원들이 함께 복음을 배우고 누구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지부 모임과 같이 표준을 따르는 청소년들이 서로

강화하고 격려하는 활동 시간이라고 수지쓰는 말했다.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마태복음 5:14 참조) 함께 모일 때 그 빛은 계속 밝게 빛나게 되죠. 그 빛을 나눌 때 더 편해지는 것을 느껴요.”

행복한 집

그 빛을 나눈 덕분에 부티 가족은 복음을 알게 되었다. 산드하와 수드하 자매와 부모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이 가족은 교회를 알게 된 경위를 어서 빨리 들려주고 싶어했다.

그 이야기는 산드하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저희는 가족이 함께 교회에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참된 교회를 찾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장로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들 이름표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셨어요.”

이 가족은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다. 수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고, 속죄를 이루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고 말했다. 그런 간증이 굳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마치 익숙한 바다를 건너 집으로 향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후 부티 가족은 그들이 내린 결정으로 줄곧 기쁨을 누렸다.

날마다 고깃배들은 비사카파트남에서 바다로 나간다. 날마다 비사카파트남 제1지부와 제2지부, 거주와가 지부 청소년들은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모두 낯익은 항구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 특별히 후기 성도들이 돌아올 항구는 현재뿐 아니라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다. ■

우정이라는 배로 향해하며

파 바니 코탈라 라트남은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면서 우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교회에 들어오고 난 후 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에서 놀림을 받았어요.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요. 무엇이든 선한 일을 하라는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을 어김없이 했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말했지요. 교회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지만 학교 ‘친구’들은 제 표준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말했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비웃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지 여쭙 보았어요. 부모님과 의논한 건 정말 잘 한 일이었죠. 두 분은 제가 자신감을 갖고, 저를 격려해 주는 친구를 선택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얼마 안 가서 저는 덩치가 큰 남자 아이나 모범생 할 것 없이 모두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좋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죠. 처음에는 저를 격려해 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힘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격려해 주셨어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무엇이 너를 돋보이게 하는 거니?’

다른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너랑 격이 다른데 왜 그런 아이랑 상대하니?’

마침내 아이들이 퍼붓던 끊임없는 시비가 멈췄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저는 옳은 길을 걷고 있었고 제 주관대로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죠.”

이제 파바니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모범적이고 친절한 여학생으로 통한다.



몬슨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약 15년 전에 나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그로부터 4년 뒤에는 건강이 나빠지면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 평생토록 매우 활동적인 삶을 살아온 나는 내 상태에 대해 무척 큰 좌절감을 느꼈다.

그 무렵, 나는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열리는 대회에 갔는데 당시 제일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하시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도 그 대회에 참석하셨다. 그때 모임이 끝나자 한 회원이 내게 다가왔다.

“샤키 형제님?”

“네?”

“앞쪽으로 와서 몬슨 회장님을 뵙도록 하시지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다.

“샤키 형제님, 몬슨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시는데요.”

“그래도 형제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제님이 편찮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든요.”

나는 알겠다면 몬슨 회장님을 뵈러 갔다. 회장님은 나를 따스하게

반겨 주시며 신권 축복을 받고 싶는지 물으셨다. 나는

그렇다고 말씀드렸다.

빈 방에 들어가서

몬슨 회장님은

누가 기름부음을

하면 좋겠냐고

물으셨다. 나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 감독님을

모셔 오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다.

누군가 감독님을

찾으러 간 사이,

몬슨 회장님 일행

중 한 분이 서둘러

떠나지 않으면

**몬슨 회장님은 나를
따스하게 반겨 주시며
신권 축복을 받고 싶든지
물으셨다.**

에든버러 공항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몬슨 회장님은 빙그레 웃으시고는 나와 자신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나이쯤 되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지요. 우린 제시간에 도착할 겁니다.”

이윽고 감독님이 오셨고, 몬슨 회장님과 감독님은 내게 신권 축복을 주셨다. 몬슨 회장님은 병이 나을 거라는 축복 대신 내가 내 몸 상태와 그에 따르는 질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또한 우리 가족을 축복하셔서 내가 질병을 감당해 내도록 도울 수 있게 하셨다.

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파킨슨병을 앓고 있지만, 74세라는 나이에 비해 나는 잘 해내고 있다. 또한 질병을 감당하는 방법도 터득했다. 나는 잘 지내며, 축복을 받은 그날 이후로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다. 의사는 나를 “최고의 환자”라고 부른다.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축복을 주신 몬슨 회장님의 호의에 늘 고마워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해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열쇠와 직분을 맡지만 동일한 신권을 갖고 있다. 몬슨 회장님께서 보여 주신 친절함 행동에서 나는 누가 신권을 지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신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실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

조지 샤키, 스코틀랜드



신권으로 축복받다

나는 쌍둥이 자매인 테레사가 교회에 가입한 후 몇 년이 지난 1996년에 교회에 들어왔으며, 당시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테레사가 침례를 받았을 때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왜 테레사가 거기에 가는 거지? 그 교회는 여자들에게 늘 뒤에서 조용히 있으라고만 하잖아.”

나는 교회 회원들과 친해지면서 친구가 잘못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교회 회원들이 보여 준 결혼생활은 정말 탄탄했고 부부 사이도 평등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남성에게만 신권을 준다는 것은 익히 알았지만 교회 형제들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신권을 사용한다는 점 또한 깨달았다.

그런 깨달음은 침례를 받고 11년이 지난 후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더욱 확고해졌다. 진단을 듣자마자 신권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영이 속삭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는 신권 축복을 받았다. 신권 축복에서 나는 내 몸에서 암이 사라질 것이고, 건강을 회복하며, 영이 의사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것은 3년여 동안 계속된 치료와 수술을 거치면서 받은 많은 신권 축복 중 첫 번째였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뜻하신다면 내 몸은 치유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영적으로 치유되어 시련을 감내할 힘을 얻을 것이라는 신앙이 생겼다.

한 차례 수술을 받고 난 후 어느 날 밤 나는 그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유방암 진단을 받자마자 나는 신권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속삭이는 영을 느꼈다.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극심한 고통으로 잠에서 깨어났던 일이 생각난다. 바로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네가 회복될 거라는 걸 알잖니. 건강이 회복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으니 말이야. 이 시련을 헤쳐 나가리라는 것도 알잖아.’

물론 한밤중에 깨어나 미래를 걱정한 적도 있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며 불안해 했고 그런 공포는 두어 시간이나 지속되었다. 그러나 3년간 계속된 투병 생활 중에 그런 염려를 느낀 때는 그날뿐이었다.

나는 신권 축복으로 계속 평안을 누렸으며 견디 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수술 후 감염과 심한 발열 증세를 겪으면서도 나는 계속 신권을 통해 힘을 얻었다. 하루는 형부가 밤중에 병원에 와서 축복을 주기도 했다. 그날 하루 종일 고열에 시달렸으나 신권 축복을 받은 후에는 열이 점점 내렸다. 대단한 경험이었지만 깜짝 놀랄 일은 아니었다.

나는 의사들이 인도받으리라는 약속이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았다. 몇 차례에 걸친 수술 중 하나를 받고 난 후 내가 깨어나자 의사 선생님이 나를 보러 오셨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뭔가가 저에게 더 깊이 들어가 보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는 문제가 생긴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건 제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발견하더니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의사 선생님은 교회 회원이 아니지만 내가 일찍이 받은 그 축복은 약속대로 실현되었다. 영이 의사 선생님을 이끌어 주었다.

나는 신권으로 내 삶을 축복한 우리 와드의 합당한 신권 형제님들과 가족에게 감사한다. 또한 그 형제님들이 신권을 존중하고, 신권을 행사하여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지지해 주는 그분들의 아내들에게도 고마움을 느낀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는 힘이다.

■ 버지니아 길리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아버지, 도와주세요

미 국 북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우리 농장에서 살수관을 옮기는 날이었다. 그날은 특히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나에게 정말 다행이었다. 일을 마치고 우리는 각자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저녁 먹을 생각을 하며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앞장서서 달리셨다.

우리 농장은 피트 강 가까이에 있었다. 우리는 커다란 산악 오토바이 타이어가 자주개자리(장미목 콩과인 여러해살이 풀-옴긴이)를 밟을까 봐 들판 가장자리로 달렸다. 오른쪽에는 들판이 펼쳐지고 왼쪽에는 가파른 독 아래로 강물이 흘렀다. 안개가 끼어 시야가 선명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제법 빠른 속도로 달렸다. 그런데 급히 방향을 틀었더니

오른쪽 뒷바퀴가 산쑥(국화과 쑥속 중에서 관목처럼 자라는 식물-옴긴이) 더미를 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 나는 강둑 아래로 급격히 방향을 틀게 되었다. 멈춰 보려 했지만 독이 너무 가파른 데다가 속도도 너무 빨랐다. 강으로 곤두박질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강으로 치닫는 그 길에서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나무에 매달려 산악 오토바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등골이 오싹했던 적은 없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지만 나는 몇 군데 굽히고 명이 들었을 뿐 다친 곳은 없었다. 안도하며 한숨을 쉬고 상황을 보니 도저히 혼자서는 독 위로 오토바이를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나를 찾으러 강둑 위에서 고개를 내밀어 보시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간신히 독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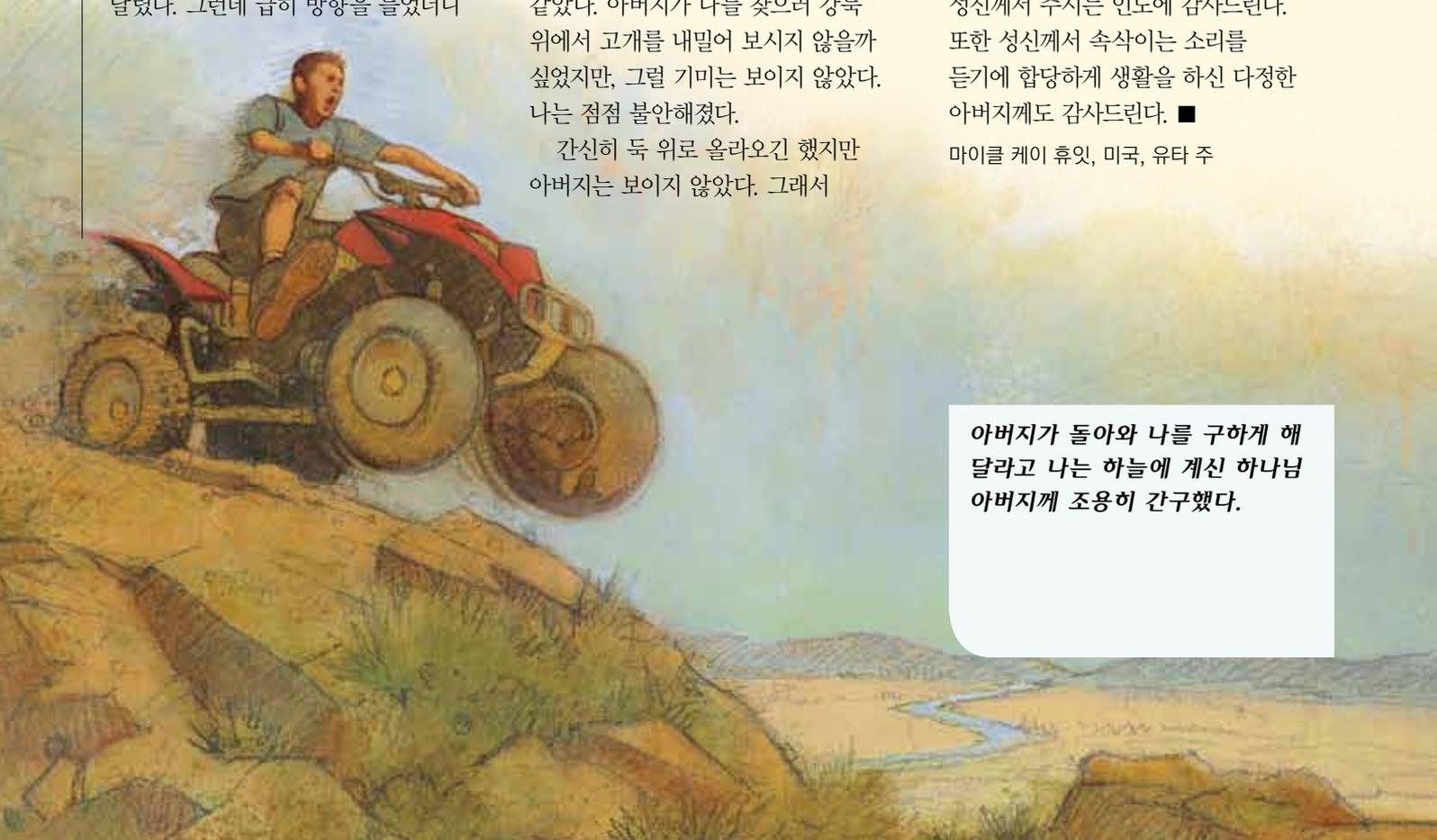
아버지가 돌아와 나를 구하게 해 달라고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조용히 간구했다. 그리고 나서는 걷기 시작했다. 한편, 아버지는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자신을 부르는 내 목소리를 얼핏 들으셨다. 들에서 출발한 후에 처음으로 뒤를 돌아다보신 아버지는 그제야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아셨다. 무슨 일인가 벌어진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나를 찾으러 되돌아오셨다.

나중에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길,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한다. 당시에 아버지는 내가 있던 곳에서 3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계셨다. 나는 하늘에 계신 자애로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에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음을 알았다.

성신과 진리를 알려 주는 속삭임, 성신께서 주시는 인도에 감사드린다. 또한 성신께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신 다정한 아버지께도 감사드린다. ■

마이클 케이 휴잇, 미국, 유타 주

아버지가 돌아와 나를 구하게 해 달라고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조용히 간구했다.



축복을 받고 싶나요?

어느 날 아침, 브리검 영 대학교 교정 남쪽에 있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데 뒤쪽에서 뭔가 세계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한 청년이 인도 위에 쓰러져 있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청년의 자전거가 부서진 채 조각나 있었다. 가슴이 얼얼해져서 그대로 서 있는데, 그 청년이 힘없이 겨우 고개를 드는 것이 보였다. 그제서야 나는 언덕 길을 오르던 다른 네 사람과 함께 청년에게 달려갔다.

한 학생이 가장 먼저 도착하여 청년을 돌아 눕혔는데, 입술과 코, 턱, 눈썹이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다른 한 학생은 휴대전화로 도움을 청했다. 내 곁에 있던 한 젊은 엄마는 천을 주었고, 먼저 도착한 학생이 그 천으로 피가 흐르는 청년의 입술을 지혈했다. 다른 여성과 나는 옆에 서서 구급대원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부상당한 청년은 눈을 뜬 채 깜박거렸고,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기가 어디죠?” 그 청년이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자 입술을 지혈하던 학생이 “여기는 남쪽 교정인데,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생긴거죠.” 하고 대답했다.

부상당한 청년은 신음하며 말했다.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 학생은 구급차가 지금 오고 있다고 말하고는 청년에게 이름을 물었다.

청년은 “데이비드.”라고 말하며 옆에 흐느꼈다. 청년은 다시 한 번 “여기가 어디죠?” 하고 물었다.

그때 교수인 듯한 정장 입을 나이



부상당한 청년이 신음소리를 내며 자기 주머니를 손으로 힘없이 가리켰다. 그 옆에 있던 학생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별된 기름이 들어 있는 작은 기름통을 꺼냈다.

지긋한 신사가 다가오더니 데이비드에게 병자 축복을 받고 싶냐고 물었다.

데이비드는 감사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교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런데 축복 기름이 제게는 지금 없네요.” 하고 말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부상당한 청년이 신음소리를 내며 자기 주머니를 손으로 힘없이 가리켰다. 옆에 있던 학생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커다란 열쇠 꾸러미를 꺼냈는데, 거기에는 성별된 기름이 든 작은 기름통이 달려 있었다.

그 학생이 “여기 기름이 있어요!” 하고 소리쳤다.

교수와 남학생들이 부상당한 청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주자마자 청년은 평온한 상태가 되었다. 교수가 청년이 회복될 것이며, 편안해지고, 이 경험이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자 내게도 평온한 느낌이 찾아왔다.

곧이어 구급요원이 도착했고, 부상당한 청년을 실어갔다. 강의실로 걸어 오면서 나는 그 청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성별된 기름을 가지고 다녔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오늘은 그 청년이 축복을 받았다.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생활을 하는 충실한 형제들, 그리고 또한 그런 형제들을 축복하시는 주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났다. ■

리아 맥클러너한, 미국 유타 주

교육에서 발휘되는 힘

수지 태기 코엘류 칼다스 벨슨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버려지고, 굶주리고, 가난한 삶밖에 알지 못한 채 살아오셨다. 정식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하셨지만 교육이 가치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 학교에서 사용할 공책을 만들어 주시려고 종이 여러 장을 모아 꿰매 주신 어머니는 내가 교육을 받아야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

초라한 시작

나는 브라질 북부 지역에서 3개월이 훨씬 모자란 미숙아로 태어났다. 30년 전,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공립 병원에서 미숙아가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의사들은 내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죽을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알렸다. 그런데 나는 죽지 않았다. 내가 살아남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셨다.

내가 다섯 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와 우리 다섯 남매를 버리고 떠나셨다. 어머니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버림을 받으셨기에 부양을 바랄 수 있는 가족이 없으셨다. 우리는

어머니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가난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아 집을 구할 수가 없었다. 대신 작은 진흙 땅 한 구획을 세를 내었다. 우리는 그 땅에 나무토막과 종이, 플라스틱으로 집을 짓고 마른 나뭇잎으로 지붕을 만들었다. 종종 두세 사람이 함께 쓰는 그물침대와 평평한 판지 상자 몇 개로 만든 침대 외에는 가구도 없었다. 수돗물도, 전기도 없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셨고, 사람들 옷을 세탁하는 일도 하셨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강에 가서 힘껏 도왔다. 그런 후에는 여러 시간을 걸어서 옷을 배달했다.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그 시간은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충분히 모이지 않는 듯 보였다.

때로는 먹을 게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드실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따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채 며칠을 지내기도 하셨다. 우리는 물만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도 했다. 굶주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달걀 하나를 여섯 사람 몫으로 나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나는 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가 몇 명 있었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다. 여자 아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팔았고 남자 아이들은 도둑질을 했다. 친구들이 나에게도 그런 일을 같이 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때 내 안에서 뭔가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느꼈다. 교회 회원이 되기 전이었는데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마음을 쓰셨다. 나는 구주의 손길이 내 삶에서 미치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았다.

학업을 포기하지 않다

내 형제자매들과 나는 오랫동안 공립학교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마침내 우리가 등록할 기회가 오자



어머니는 학교에 관해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셨다. 어머니는 내가 교육을 잘 받으면 언젠가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좋은 삶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너무 이른 나이에 힘겨운 방법으로 일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한 것도 미안해. 하지만 이제 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학업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깐 말이야.”

일단 학교에 들어가자 우리는 학용품을 만들기 위해 풍부한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했다. 나는 쓰레기통에서 아무것도 쓰지 않은 종이 낱장을 찾아내 집으로 가져왔다. 어머니는 종이 여러 장을 꿰매어 공책으로 만들어 주셨다. 어머니는 또 연필 한 자루를 사서 삼 등분을 하셨다. 그러면 나의 두 자매와 내가 각각 하나씩 학교에 가져가서 필기를 했다. 나머지 두 동생은 우리와 함께 학교에 가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다.

어머니는 집에서 만든 공책과 삼 등분된 연필 한 조각을 주며 나를 학교에 보내셨다.

새로운 신앙

어머니는 평생 너무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할 수도 있다고는 믿지 않으셨다. 어린 시절에는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커 가면서 하나님에 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왜 우리 가족이 좋은 삶을 살 기회를 절대 갖지 못하는지, 왜 나는 장난감과 충분한 음식이나 새 옷을 절대 가질 수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웬일인지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그 느낌으로 위안을 받았다.

열세 살 정도 되었을 때,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왔다. 선교사들은 내 질문에 모든 답을 들려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 선교사들은 교회에 가면 내 또래가 참석하는 반에서 복음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도 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 물문경에 관해서도 말해 주었다. 그렇게 내가 침례를 받는 날이 오게 되었지만 우리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울적한 기분이 들었으나 나는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처음으로 새로운 삶, 희망과 행복, 신앙, 사랑이 깃든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마약과 부도덕한 행위에서 위안을 찾았다. 반면에 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아들의 복음에서 위안을 얻었다. 침례를 받은 후 나는 주님께서 내 삶 전체를 돌보아 주셨음을 깨달았다.

나는 복음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다.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났다. 우리 집을 방문한 몇몇 회원들은 내 생활에 관해 조금 알게 되었다. 그분들은 교회에 입고 갈 옷과



훈련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두뇌와 손을 훈련하기를 바라십니다. …… 어떤 분야를 선택했든, 그것이 냉장고를 수리하는 기술이든, 유능한 외과 의사로 하는 일이든 간에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 여러분이 받은 훈련으로 여러분은 교회에 영예를 안겨 줄 것이며 여러분 또한 크게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청소년들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4쪽.

신발, 학교에서 사용할 공책을 사 주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와주셨다. 나는 교회 회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면서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어린 나이였기에 나는 복음에서 쉽게 빛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교회 회원들이 함께해 주었고, 나는 새로 찾은 신앙 안에 굳건히 남았다.

복음을 알았기에 실로 내 인생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침례를 받은 후에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더 커졌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가정교사가 되었다.

친해진 한 특별한 동반자 덕분에 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 기회로 인생이 정말 영원히 바뀌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잘 아셨고 나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두셨음을 알았다. 교육을 더 받는 그 기회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일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만큼 열심히 공부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았다. 나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어학 연수 과정을 공부하면서 하루에, 많으면, 10시간까지도 도서관에서 보냈다. 한 교수님은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얻도록 기도하라고 권하셨다. 그래서 매일 밤 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은사를 간구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도와 주셨다.

어학 연수 과정을 마친 후에는 몇몇 대학에서 입학통지서를 받았다. 나는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에 가기로 결심하고 간호학과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 학과에 들어가는 것은 특히 외국 학생들에게는 무척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도서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친구들은 아예 도서관으로 이사를 하라며 놀려 대기도 했다.

힘들다고 느낄 때면 나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했다.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모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희생하십시오. 세상에서 일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주신 말씀이었기에 나는 진지하게



간호학과에 등록했을 때, 그 과정이 힘들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함께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어느 과목에 대해 잘 모를 경우에는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잘 알 때까지 공부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나는 가족을 도왔다.

축복사의 축복에서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주님께서 나의 선교 사업에 특별한 축복을 마련해 두셨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지만 순종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알게 될 것이었다.

새로운 기회

나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브라질 쿠리티바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때

종교 교육원

여러분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은 여러분은 다른 청년 성인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500개가 넘는 종교 교육원 중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종교 교육원을 찾아보려면 지역 신권 지도자들에게 문의하거나 www.lds.org/institutes에 접속한다.

“세상에서 일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씀이기에
 나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간호학과에 들어가게 되자 감사와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다. 그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며 희생을 계속 해야 하겠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남편을
 만났고 우리는 2007년에 결혼했다.
 그 해에 어머니는 교회에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우리가 겪은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행복해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나를
 이해하게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가족은 축복을 받았다.
 그토록 많이 희생하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 나는 언제까지나 어머니에 대해
 감사드릴 것이다.

2010년이 시작될 무렵에는 졸업을
 준비하고, 첫 아이도 임신했다. 간호학과
 졸업을 두 달 앞두고서 임신 합병증이
 생겨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다.
 교수님들은 내게 휴학을 하고 나중에
 졸업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겨우
 두 달이면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휴학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남편과 나는 신중하게 시간을

계획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었고, 나는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나는 공부 시간을
 계획하여 남편과 아들에게 필요한 관심도
 쏟을 수 있었다. 수업을 받을 때에는
 종종 시부모님이 아이 곁에 있어 주셨다.
 훌륭한 과 친구 두 명도 수업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주님께서 이 힘든 시기에 나를 돕도록 이
 모든 사람을 보내 주셨음을 느꼈다.

더 나은 삶

졸업 후에 나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통과하여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다.
 남편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단 남편이
 직장에 들어가면 나는 일을 그만둘
 계획이지만, 미래에 비극적인 일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 내가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옳았다. 교육은 확실히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교육으로
 내 삶이 변화했고 내 자녀들의 삶 또한
 변화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 두신 계획을 따랐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누리게 되었음을 나의 자녀들도
 깨닫기를 바란다. 주님께서는 내가
 교육을 받기를 바라셨으며, 그 과정을
 밟는 단계에서 매번 나를 도와주셨다.
 나는 자녀들이 내가 그랬듯이 일하는
 법을 배우고 나만큼이나 교육을 가치
 있게 여기기를 소망한다. ■

주

1. 고든 비 형클러, “청소년들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리야호나*, 2001년 4월호, 34쪽.

영구 교육

영구 교육 기금은 자립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교회
 회원들을 돕고자 2001년에 설립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회원들은
 기금을 받아 교육비를 지불하는 데 쓸 수
 있다. 빌린 돈은 직장을 얻은 후에 갚으면
 된다. 영구 교육 기금을 빌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신청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몇
 가지 조건을 따라야 한다.

- 합당하고 활동적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만 19~26세인 독신 남성 신청자는 귀환 선교사이거나 승인된 면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신권 지도자가 추천을 해야 한다.
-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만 30세 이상인 경우, 종교 교육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영구 교육 기금이 승인된 나라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학교에 다녀야 한다. 영구 교육 기금은 40개국 이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최대한 스스로 학비를 감당하고, 졸업 후에 더 좋은 직업을 얻어서 빌린 기금을 완전히 갚겠다고 약속한다.

영구 교육 기금 신청에 관심이
 있다면 지역 신권 지도자에게 문의한다.
pef.lds.org에 접속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시련이 올 때, 그것이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해 주시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 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시련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주어지는 이유와 관계없이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양심이 알려 줄 것입니다.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신이 일으킨 문제는 어떤 것이든 고치고자 노력하십시오. 부모님과 신권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더 흥가분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시련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들로 신앙 또는 인내를 시험받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러한 역경을 활용하려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무엇을 더 개선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면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강화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구주께서 그러셨듯이 “더욱 간절히”(누가복음 22:44 참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련을 거둬 주시거나 그 시련을 겪는 동안 잘 견뎌 내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모사이사야 24:14~15 참조)

친구들과 가족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지려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구들 혹은 가족에게 영감을 주시어 제게 간증이나 경험을 나누게 하시어 제게 경고해 주십니다. 친구와 가족들이 생각을 나눌 때 제가 죄책감이나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회개하고 삶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루이스 에스, 17세,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현재 하는 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진정 바라시는 일인지 알아보려면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삶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성신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성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든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든 시련의 목적은 같습니다. 신앙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대처한다면 성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에밀리 비, 18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시련으로 강화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모두 그 시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시련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겠지만 신앙이 있으면 그 시련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다음 말씀을 늘 기억하려 애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한복음 14:18)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쇠막대를 붙들 신앙을 품고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생에 걸쳐 도움을 주시며 우리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늘 바라십니다.

올리비아 비, 18세, 미국, 미네소타 주

생각해 보세요

시련이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볼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을 극복한

후에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변함없이 그대로일까요? 시련을
극복해 내는 일을 상상해 볼 때 기분이
나아지고 행복해질 것이며 결국 올바른
길에 설 것입니다.

암몬 케이, 16세, 미국, 유타주

올바른 행로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경전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활하며 성신과
조화를 이룬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 주실 것입니다. 현재 걷는 행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돌아서십시오.
협착하고 좁은 길에 머무십시오.
엘리자베스 피, 15세,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시련에서 배울 수 있도록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언제나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시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과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나쁜 길에
들어섰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화해 주시고 그 시련 가운데
얻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고양시키고 간증을 키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다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려 하신다는 강한
간증이 있습니다.

루디 알, 17세, 에콰도르, 과야스 주

시련은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는 모든
시련이 우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열네 살 때 저는 병에
걸려 8개월 동안 학교를 쉬며 집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이 시련을 겪으면서
저는 더욱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시련을
통해 자신이 삶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에게 훌륭한
경종이 됩니다.

제니퍼 피, 17세, 뉴질랜드, 북섬

인내하십시오

계명을 어긴 결과로 어려움이
닥쳐왔다면, 그것은 아마도 경고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행동과
관계가 없다면 그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저라면 제가 바뀌야 할 것이 있는지,
혹은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 볼 것입니다.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힘과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응답이 오는
중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카엘라, 피, 17세, 미국, 아이다호 주



**구주를 더욱
닳기 위해**

“우리를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 필요한 속성과
성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겪게 하십니다. 시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오지만, 우리가 경험에서 유익을
얻는 방법만 깨닫는다면 각 시련은
우리가 조금 더 구주와 같이 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교리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욱 강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겪는지 이
생에서는 결코 알 수 없을지라도 경험을
통해 성장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임스 비 마르티노 장로, 칠십일, “모든 것이
함께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101쪽.

다음 질문

“복음대로 생활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모두
생각해 보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잡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2011년 7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7/11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여러분의 모범이

복음대로 생활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강화됩니다.

저는 아론 신권을 존중하는
청남을 마음 깊이 우러러보며
존경합니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스테이크에 있는
세 청남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강해진 마틴

웨스트랜드 지부에 다니는 마틴은
열네 살 나이에 나이로비에 있는
집을 떠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마틴은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마틴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주중에 아침 식사로 차와
빵만 나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700명이
재학 중인 이 학교에서는 한 사람만을
위해 특별 식단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빵과 함께
물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반 친구들과 교회에
가서 종교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틴



중요합니다

때로는 왜곡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반 친구들은 마틴이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고 속삭이며 흠꼴거렸습니다. 이따금 어떤 아이들은 마틴을 악마 숭배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은 이런 시련으로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매달 찾아와 주시는 부모님과 자주 편지를 보내 주시는 지부 회장님 덕분에 마틴은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부 회장님은 항상 New Era(뉴 이라: 매달 영어로 출판되는 교회 청소년 잡지-웁긴이) 최신호를 보내 주셨습니다. New Era를 읽으면서 마틴은 어려움에 맞설 용기를 키웠습니다.

교회에 반드시 참석하는 조셉

리루타 와드에 다니는 조셉은 아론 신권 교사 직분에 있습니다. 학생수가 많은 조셉의 학교에는 약물 등 여러 나쁜 일을 일삼는 또래가 많습니다. 조셉은 그곳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지만 복음에 충실합니다. 조셉은 교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늘 일찍 교회에 도착하며 정원회 회장과 감독님에게 지명받은 대로 깔끔한 상태로 봉사할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셉은 거의 매주 일요일마다 성찬 준비를 돕습니다.

우편으로 과제물을 보내는 험프리

어퍼힐 와드에 다니는 험프리도 교사입니다. 험프리는 불과 이년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틴이 그랬던 것처럼 험프리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닙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신앙이 쑥쑥 자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미나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험프리는 모든 세미나리 과제물을 우편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과제물을

완성한 다음, 곧바로 세미나리 교사에게 보냅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험프리는 일요일에 교회까지 차를 얻어 타기 위해 보통으로 45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험프리는 항상 교회에 일찍 도착하여 맑은 바대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지명을 받을 때마다 험프리는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험프리가 말씀 준비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는 것을 모든 청중이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표준대로 사는 삶

지금 이 세상 거의 모든 곳에서 도덕 표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하고 고결한 것을 가까이하려는 젊은이들이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은 도덕 표준이 개인적으로 규정되는 다양한 것이라는 거짓된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셉



조셉 더블류 시타티
장로
철십인



험프리

그러나 여러분은 신앙의 표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에서 얻는 안정감, 확신, 평화와 기쁨을 또래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모범으로 다른 사람들은 회복된 복음이 전해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청남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를 수행하고 청녀는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고 어른과 친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모범

여러분이 청남이든 청녀든, 진심으로 구주를 따른다는 사실을 친구와 주위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신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소년 시절에 보이신 삶은 여러분에게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겨우 열두 살이었을 때 예수님은 지상에 계신 부모님을 따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에 이끌리셨습니다. 경전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교리에 대한 이해력으로 나이 많고 박식한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누가복음 2:42~52 참조) 구주께서는 우리가 영과 함께할 만큼 합당하기만 하다면 심오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데에 열두 살이라는 나이가 적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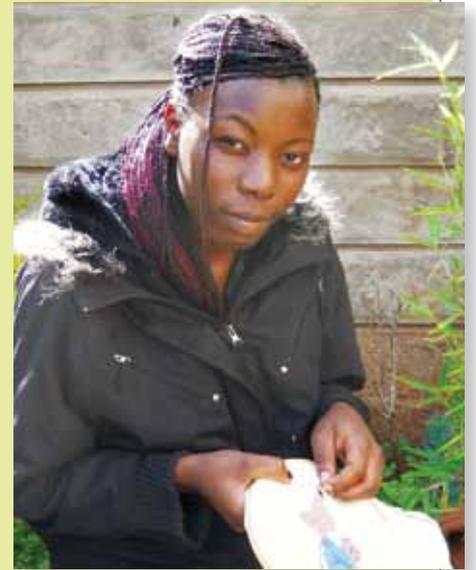
경전에는 용기 있게 신앙을 지킨 또 다른 청소년들도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다니엘, 니파이 등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본보기로 후기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아론 신권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에 있는 청남 청녀들을 신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청남 여러분이 그분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는 데 신권을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며, 성찬을 집행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며,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을 강화하고, 감독이나 지부 회장님이 지명하신 대로 봉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론 신권 소유자로 봉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녀 여러분도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피고, 역량과 재능을 키우면서 구주께서 보여 주신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여러 단위 조직에서 이러한 신권 의무를 경건하고 위엄 있게 수행하는 청남들을 보아 왔습니다. 또한 마음과 혼을 다해 봉사하는 청녀들도 보아 왔습니다. 그러한 봉사와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신뢰받는 줄리엣

청녀 여러분, 여러분도 청남과 같이 복음대로 생활하는 모범이 됩니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로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려 주는 원리들을 배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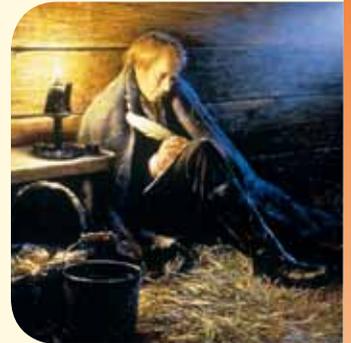


줄리엣도 그런 청녀 중 한 사람입니다. 웨스트랜드 지부 회원인 줄리엣은 회원 가정에서 태어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줄리엣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가치관을 지녔습니다. 이를 대견하게 여긴 학교에서는 줄리엣을 학교 대표 여학생으로 임명했습니다. 줄리엣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제일 신뢰받는 학생입니다.

줄리엣은 복음 표준대로 사는 것이 신권을 존중하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줄리엣이 보여 주는 모범은 신권을 존중하는 청남 청녀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교리와 성약 121:41~43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방법대로 신권 권세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설득

설득-이치를 밝히거나 간청하여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믿거나 행위를 하게 함.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인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인내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수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남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아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계속 인내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58쪽.

온화함과 온유함

온화함과 온유함에 대해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 온화함과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갈라디아서 5:22~23 참조)
- 온유함은 주의 종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데살로니가전서 2:7;

41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42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43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 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네가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디모데후서 2:24 참조)

-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시편 37:11; 마태복음 5:5 참조)
- 온유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는 증거입니다.(모로나아서 7:39 참조)
- 온유할 때 성신이 우리를 방문합니다.(모로나아서 8:26 참조)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진심 어린; 속이거나

가장하지 않는.

최근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베푼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베푼 수 있을지 일지에 적어 봅시다.

위선과 간교함이 없음

위선-실제와는 다르게 가식적으로 행동함.

간교함-부정직한; 교활한.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음

꾸짖음-꾸중하거나 부드럽게 바로 잡아 줌; 반대를 포함.

제때-신속히; 곧; 너무 늦기 전에.

날카롭게-명쾌함.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

“영감받고 사랑이 가득 찬 꾸짖음은 단합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 꾸짖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제일회장단 제1보좌, “하나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9월호 6쪽.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선정된 성구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학습을 시작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성서적려안숲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으로 주고받은 수화

페드로 오바에스

도 미카 공화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막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였다. 그 지역은 가르칠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소문난 곳이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는 오리비아테스라는 구도자 한 명뿐이었다. 그는 전에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지만, 청각 장애인인데다 수화를 쓰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르치지를 못했다.

어느 날 동반자와 나는 오리비아테스를 가르치는 기적을 구하기 위해 금식과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우리 둘 다 수화를 못하기 때문에 오리비아테스의 가족 중 한 명이 통역을 도울 수 있게 누군가가 집에 있을 때에 맞추어 그와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오리비아테스를 만나러 그 집에 도착해 보니 다른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오리비아테스가 의자를 가지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동반자와 나는 영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나는 영이 함께함을 강하게 느꼈다.

오리비아테스가 수화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 빙그레 웃어 보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다음 번에 누군가가 통역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약속 시간을 종이에 적기로 했다. 그런데 순간, 우리 둘 다 자리에 남아서 가르쳐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나는 동반자에게



“한 번 노력은 해 봅시다. 영이 우리 도와줄 거예요.” 하고 말했다.

우리는 토론을 가르치는 동안 그림을 그려 가며 가장 기본적인 손짓을 이용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오리비아테스의 수화가 이해되었고, 수화로 대답까지 할 수 있었다. 그도 우리가 하는 말을 모두 이해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오리비아테스와 간증을 나눠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첫번째 시험 그림을 그에게 보여 주었다. 그리고 나는 종이에 “저는 이 일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썼다.

그러자 오리비아테스가 수화로 대답했다. “저도 그것이 진실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죠. 기도를 드렸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동반자와 나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 약속을 잡았다. 우리가 이 구도자에게 회복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성신이 우리 메시지를 그의 마음에 전해 주었음을 알았다.(니파이후서 33:1 참조) 복음을 나눌 때 꼭 완벽하고 유창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도 배웠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필요 없을 때도 있다.

금식과 기도, 신앙과 같은 단순한 일들이 우리와 우리가 섬기는 이들의 삶에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에즈라는 작은 아웃리거 카누(안전하게 타기 위해 배 옆에 물에 뜨는 구조물을 댄 카누-웁킨이)를 타고 노를 젓다가 멈추어 서서 연안 반대편에 펼쳐진 태평양으로 떨어지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여러 해 동안 에즈라는 아버지와 함께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왔지만 오늘은 눈에 눈물이 차 올라서 그 익숙한 광경을 보기가 어려웠다.

오늘 에즈라는 혼자였다.

카누가 물 위에서 잔잔히 흔들릴 때면 아버지가 종종 하시던 그 말씀이 들리는 듯했다. “에즈라, 잘 지켜 보거라. 언젠가 내가 죽으면 네가 가족을 책임져야 할 테니 말이다.”

오늘, 아버지가 주의를 주면서 아들들을 준비시켜 놓으려 했던 그날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날은 너무 빨리 다가왔다. 에즈라는 겨우 열여섯 살이었다. 아직 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책임

에즈라에게 아버지는 영웅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일곱 살이 되는 날만을 에즈라는 손꼽아 기다렸다. 왜냐하면 어망을 치고 견져 올리는 일을 도우려면 일곱 살은 되어야 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잡아서는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에즈라와 누이들 다섯과 어머니를 부양하고, 미국으로 선교 사업을 간 에즈라의 큰 누나를 뒷바라지하며, 이웃을 도울 정도는 되었다. 거기에 에즈라도 자신의 선교 사업을 위해 저축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예기치 않게 빨리 돌아가셨기에 에즈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아버지를 잃은 에즈라는 이제 자신의 영웅을, 자신의 감독님을,

자신의 스승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마음 아파하는 에즈라 앞에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준비시킨 다음에 넘겨주려 한 그 책임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것이다. 이제부터는 에즈라가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기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첫 번째로 맞은 주에는 물고기를 잡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마음을 전혀 추스를 수 없었다. 아버지의 카누를 가져와서 아버지의 그물을 사용하여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견디기가 힘들었다.

한 주가 더 지나고 나서야 나가서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짐은 너무 무거웠다. 에즈라는 정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자신이 아버지처럼 되기에는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 하는 점도 사무치게 깨달았다.

에즈라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고 말했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단번에 알았어요. 카누를 타고 바다로 나갔을 때, 아버지의 빈자리를 실감했어요. 아버지께서 해 주신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가족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태평양을 흐르는 얇은 물 속에 서서 에즈라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생전에 아버지가 에즈라에게 신뢰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분인 주님께 매달렸다.

“아버지가 있었던 곳을 제게 보여 주세요.” 에즈라는 기도했다. “아버지께서 제게 바라던 것을 제가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사모아에 사는
16세 소년 에즈라는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돌렸다.



에즈라가 친구인 페투와
함께 그물을 걷어 올린
다음 아웃리거 카누를
타고 돌아오고 있다.

응답

기도를 드린 후, 초저녁의 고요함 속에서 에즈라는 무엇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에즈라는 아버지가 그물을 내리던 곳으로 인도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 속에 떠올랐다.

“기도를 드린 후에 더 많은 힘을 느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 주실 것을 알았어요.”

고대에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그물을 내려야 할 곳을 보여 주셨듯이 에즈라 또한 도움을 받았다. 에즈라는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하고 말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의문스럽기도 했지만 에즈라는 생각보다 자신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생각하고, 보고,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졌거든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에즈라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버지와 같아졌다. 에즈라는 어부로서, 교사로서 아버지가 걷던 길을 따랐다.

에즈라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둘째 주에 친구인 페투가 찾아와 같이 가서 일을 배울 수 있는지 물어 왔다. 에즈라는 페투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페투는 에즈라와 함께 다니면서 일을 도와주었다.

“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것처럼 제가 직접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볼 기회를 얻게 되어서 감사해요. 제가 아버지처럼 어부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사람에게 가르치라
누군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그날
먹을 양식만을 주는 것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 먹을 것을 주는 것이라는 속담이



에즈라는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에즈라는 자신이 주님을 찾았을 때 그분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분께 저도 응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아버지에게서 넘겨받은 에즈라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단번에 알았다.”라고 말한다.

있다. 에즈라의 아버지는 분명히 두 번째 길을 실천했다.

하지만 에즈라는 물고기 잡는 방법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 지식은 에즈라의 인생에서 물고기를 잡는 능력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에즈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에즈라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주에 성임해 주셨던 제사 직분에 따른 책임을 합당하게 이행하기 위해 무척 애를 쓴다. 또한 학교와 세미나리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고기잡이를 나가는 일정을 잘 계획한다.

이외에도 에즈라는 언젠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서 할 수 있는 만큼 저축을 하고 있다.(마태복음 4:19 참조)

“한번은 가정의 밤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봉사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에즈라는 자신이 주님을 찾았을 때 그분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분께 저도 응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

수영에서 배운 교훈

또래에게서 압력을 받는 일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점을 수영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때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한다.

마리사 톰슨

일 곱 살 때, 수영을 할 줄 몰랐던 나를 위해 엄마는 친구 앤지와 함께 수영을 배우도록 나를 오후 수영반에 등록시켜 주셨다. 강습이 끝날 때마다 수영 선생님은 우리를 수영장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영법을 연습시키셨다. 선생님이 배를 받쳐 주셨고 등에 '공기 주머니'를 매고 있었기에 수영장 한복판에 있어도 아무런 탈이 없었다.

수영장에서 또래에게 받은 압력

어느 날, 앤지와 나는 등에 공기 주머니를 매지 않아서 수영장 벽에서 꿈쩍하지 못하고 있었다. 앤지는 1.2미터 정도 떨어진 벽 쪽으로 헤엄쳐 가기로 했다. 내가 머뭇거리자 앤지는 자기처럼 해 보라고 소리쳤다. 무섭긴 했지만 숨을 잔뜩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반대편으로 헤엄쳐 가려 했다. 나는 등에 공기 주머니를 뗐을 때처럼 쉽게 물에 뜰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덜컥 겁이 났고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다. 그 찰나에 수 주일 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수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팔 하나를 물 밖으로 치켜들어. 그러면 누군가 너를 구해줄 거야."

그 생각에 팔을 위로 쪽 뻗었지만

바깥 공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힘을 다해 여기저기에 팔을 뻗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허둥대다 나는 수영장 벽에 머리를 쿡 하고 부딪혔다. 거기서 앤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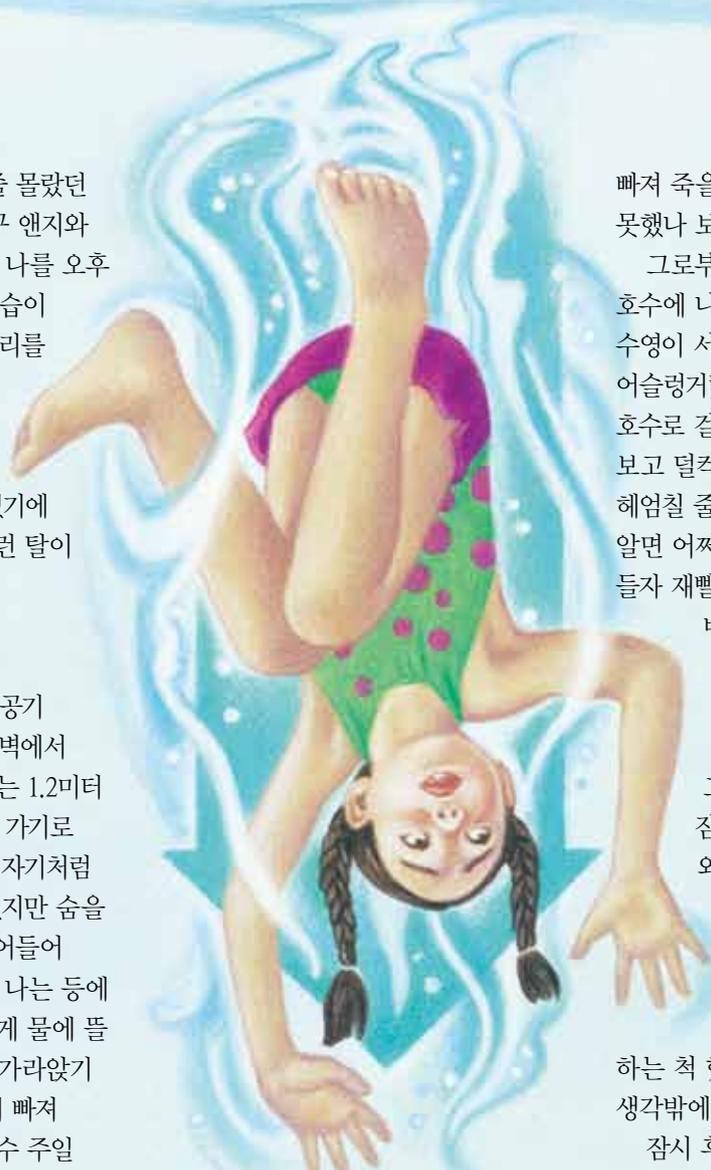
빠져 죽을 뻔한 걸 앤지는 눈치채지 못했다. 보다.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우리 가족은 호수에 나들이를 갔다. 역시나 수영이 서투른 나는 얇은 물에서만 어슬렁거렸다. 십여 분이 지났을 때, 호수로 걸어 들어오는 한 친구를 보고 덜컥 겁이 나 버렸다. '이런, 내가 헤엄칠 줄 모른다는 걸 스테파니가 알면 어찌지?' 꽤나 창피할 거란 생각이 들자 재빨리 무릎을 구부려 손으로

바닥을 기고 발로 물을 차면서 헤엄을 치는 시늉을 했다.

스테파니는 물로 뛰어들더니 멋지게 수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는 더 당황스러웠다. 잠시 후에 스테파니가 내게로 와서 말을 걸고는 반대쪽으로 힘차게 헤엄쳐 가자 완벽하고 능수능란하게 손과 발을 움직이며 일으킨 물결이 나를 휘감았다. 나도 다시 수영을 하는 척 했지만 그런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잠시 후 용기를 내서 진짜 헤엄을 쳐 보기로 했다. 얇은 물에서 나는 바닥을 짚던 손을 떼고 개헤엄을 쳐 보았다. 뭔가 되는 것 같았다. 몸이 물에 뜬 것이다. 몇 초뿐이었지만 몸이 물에 떠올랐다. 저녁 내내 그 동작을





반복했다. 우리 가족이 호수를 떠날 때쯤에는 개헤엄으로 호수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었다.

또래 압력이 미치는 영향력

수영장과 호수에서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 보면 또래에게서 받는 압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깨닫게 되어 놀라게 된다. 수영장에서는 하마터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호수에서는 수영을 배워야겠다는 자극을 받았다. 또래에게서 받는 압력은 이처럼 양면성이 있다.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긍정적인 작용도 한다. 하지만 그 압력은 언제나 만만치 않은 영향력이 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동료들이 압박하는 힘에 굴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요한복음 12:43) 리하이가 꿈에서 본 사람들도 크고 넓은 건물에 있던 이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을 하자 주님을 부끄럽게 여겼다.(니파이전서 8:26~28 참조)

주변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을 때 그에 굴하여 옳은 일을 외면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이를테면, 나는 후기 성도로서 지켜야 할 표준 때문에 조롱을 받은 적이 있다. 친구 중에는 내가 옷을

슬쩍 훑치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으면 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 아이들은 내가 물에 떠서 수영을 제대로 배우기를 바라기보다는 나를 물 속으로 끌어내려 익사시키려는 멧돼지와 다를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자극을 주어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내 삶을 밝은 길로 인도하는 친구들도 있다. 8학년 때 친구 앨리는

나를 설득하여 다음 학년에 응원단에 지원해 보라고 권했다. 앨리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큰 고등학교에 갓 들어온 신입생으로서 그런 도전은 생각만으로도 아찔했다. 그러나 앨리는 나를 설득하여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했다. 친구의 권유가 없었다면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었다. 우정 어린 친구가 준 압력 덕분에 나는 고등학교 생활에 한결 편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좋은 친구들이 내게 자극을 준 덕분에 학생회에 출마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울 수 있었다. 그 친구들은 내 생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래에게서 받는 압력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누구에게서 어떤 압력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올바른 영향력을 수용하면 세상의 것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도 배웠다. 표준이 높은 교회와 친구들에게서 받는 긍정적인 압력은 수영장에서 나를 물에 뜨게 해 주던 그 공기 주머니처럼 내 삶에 큰 힘이 된다. ■



아 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맞은
성탄절에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작은 은종이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늘
영에 귀 기울이고 순수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는 정말
소중한 보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녀 회장과 인터뷰에서,
메건 워더즈 로하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잠언 3:5)

어 렸을 적에 저는 아버지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늘 주님께 헌신하시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비이기적인
봉사에 대한 높은 표준을 세워
주셨습니다. 매년 일주일간 휴가를
내셨는데, 여행을 가는 대신 홀로 사시는
옆집 할머니 집에 페인트 칠 하는 일을
도와 달라고 가족들에게 부탁하시곤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봉사하신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는 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아버지는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를 축복하셔서 낮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했기에 저는 그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를
이해하고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이
닫힌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완전히 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일년이 지난 후, 성찬식에서 한
연사분이 잠언에 있는 성구를 읽어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그때, 영은 저에게 그 구절이 제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대답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기대한 내용과도 달랐지만 제 기도는
가장 멋진 방식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알고자
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옆에서
걸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에워싸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증인



십이사도 정원희의 열
틈 페리 장로님께서 이
주제에 관한 생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회복된 교회를 통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회복의 메시지”,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85~88쪽; “무엇을 구하느냐?”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84~87쪽에서 발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은 세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은 구주와 복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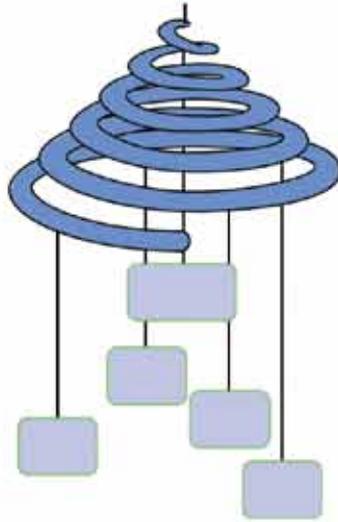
우리는 회복된 구주의
교회에서 주님께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구원 의식을
받습니다.

땅과 하늘에서 인봉할 권능과
더불어 신권 열쇠가 인간에게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학교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줍니다



안나 마리아 코번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신앙개조 제4조)

신 앙개조 제4조에는 중요한 복음 원리와 의식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를 지켜야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으려면 예수님을 뵈는 적은 없어도 그분께서 살아 계시고, 구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즉 기도과 교회 참석,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중 중요한 한 가지는 만 여덟 살 이상이 되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침수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몸이 물 속에 완전히 잠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침례는

침례를 줄 수 있는 신권 권세가 있는 사람이 베풀어 줍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을 맺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신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침례를 받고 나면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신권 소유자가 안수를 하여 성신의 은사를 줍니다. 성신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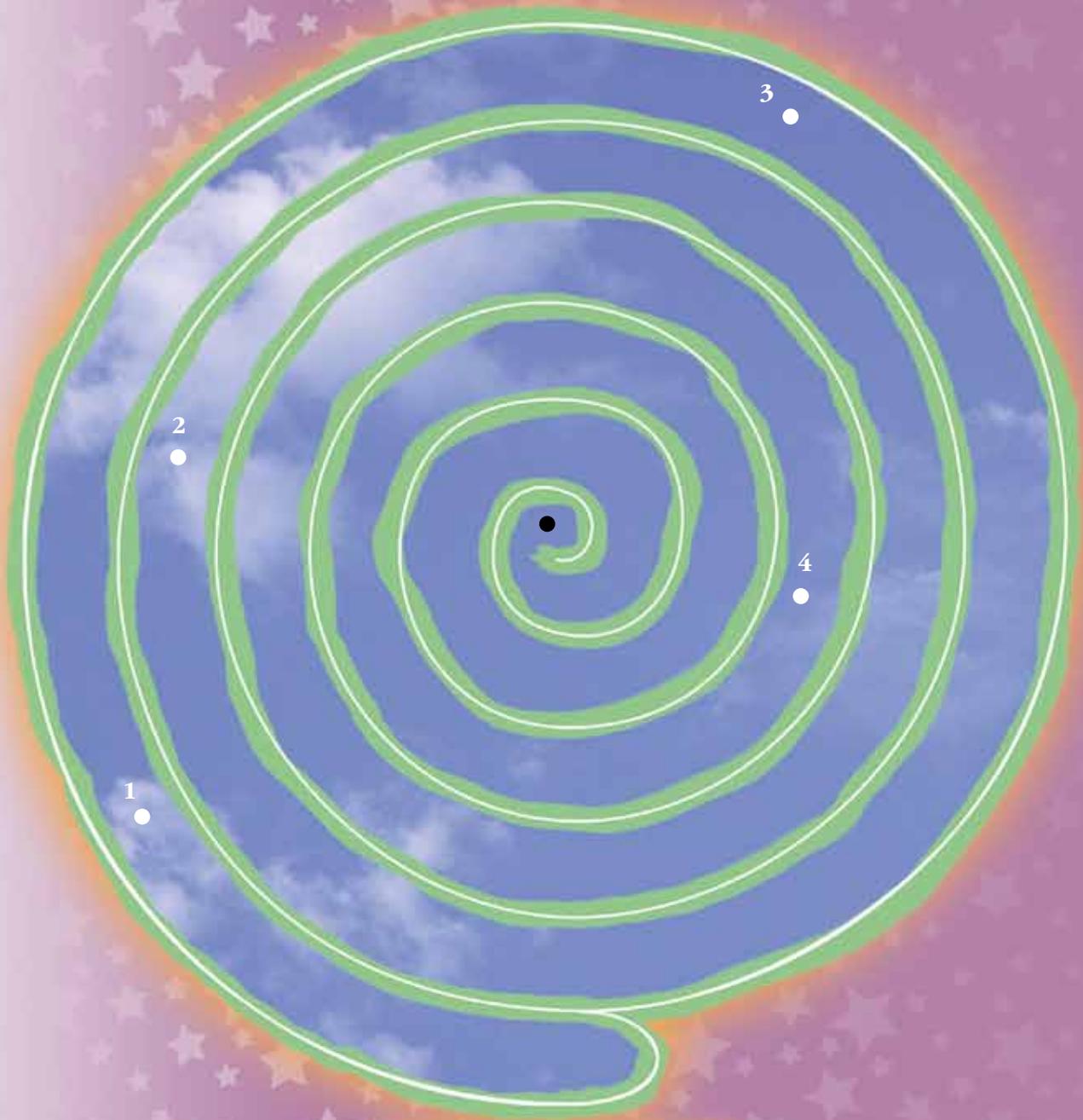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어린 아이들은 태어난 날부터 여덟 살이 되기 전까지는 깨끗하며 죄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덟 살이 되어 침례를 받고 난 후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려면 먼저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와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계명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속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며, 물속에 잠겨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를 모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

용수철 모양으로 모빌을 만들어서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을 기억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63쪽을 두꺼운 종이에 풀칠하여 붙입니다. 카드 다섯 개를 오려 낸 다음, 굵은 선을 따라 모빌을 오려 냅니다. 표시된 곳에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줄이나 리본을 이용하여 모빌에 카드를 매듭입니다. ■



●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

●
1.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
2. 회개

●
3.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
4.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

재깍 꼬꼬 말하기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성스럽고 깨끗하게
지키[겠습니다.]”
나의 복음 표준

다니엘 케닝턴
실화에 근거

“충실하라. 그리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라.”(교리와 성약 9:13)

코노르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친구가
알려 준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친구가 “꼭 들어가 봐!”
하고 말한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웹사이트가 나타나자마자
코노르는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재빨리 화면을 닫으려고 했지만 클릭을
할수록 좋지 않은 사진들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코노르는 컴퓨터 전원
단추를 누르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코노르는 그런 사진을 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몇 달 전에
침례를 받은 코노르는 성신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평안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들을 보고
나서는 평안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코노르는 죄책감이 들었고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코노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대화에
귀를 기울이려 했지만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속에서
매스꺼운 느낌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도를 드리면서 코노르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본 사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코노르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그런 것을 보지
않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했지만 엄마께도
그 일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노르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거나
실망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결국 코노르는 결심을 하고 엄마가
계신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코노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이야기해 보렴.”

코노르는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친구가 한 말과 자신이
그 화면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코노르를
골똥히 바라보기는 하셨지만 화가 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컴퓨터를 끄고 방으로 뛰어갔어요.
죄송해요, 엄마. 처음부터 그 주소는

입력하지도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나쁜 건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엄마는 코노르를 꼬옥 안아
주셨습니다. “코노르, 네가 그런
사진들을 보았다니 기분이 좋지
않구나. 그렇게 어린이들을 속여서
나쁜 것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넌 올바르게 행동했어.
앞으로 컴퓨터에서 나쁜 사진을
보거든 ‘재깍 끄고 말하기’를 하렴.
그러니까, 전원 단추를 눌러서
컴퓨터를 끄고 곧장 엄마한테 말해
달라는 뜻이야. 넌 정말 옳은 일을
했어.”

코노르는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엄마는 “코노르, 그건 네 잘못이
아니란다. 그건 실수였어. 그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 제가 옳은 일을
한 거라면 왜 그렇게도 나쁜 기분이
들었을까요?”

“성신은 해로운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알려 주신단다. 네가 받은
그 느낌은 성신께서 너에게 거기서
달아나라고 말해 주신 거야. 엄마가
우리 컴퓨터에 나쁜 사이트가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 인터넷을 사용하기 전에 부모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만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여러분과 관련된 정보를 절대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 자주 들어가는 웹사이트는 검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즐겨찾기에 추가해 둡니다.

부적절한 웹사이트에서 빠져나오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화면 또는 컴퓨터를 끈다.



2. 어른에게 이야기한다.



3. 다시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4. 다른 사람이 부적절한 사이트를 보여 준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난다.

들 어가 볼 만한 재미있고 안전한 웹사이트를 찾는다면 friend.ids.org 가 보세요. 이 사이트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 색칠하기, 비디오, 슬라이드쇼, 놀이가 있습니다.

차단되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을게. 그렇더라도 이따금 나쁜 것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

코노르는 “컴퓨터를 재깍 끄고 엄마께 말씀드리는 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딩동댕!”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노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마음이 편안해져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코노르는 성신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좋아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



우리들 이야기



퀘벡 몬트리올 스테이크 빌-마리 와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은 함께 퀘벡 몬트리올 성전 뜰에 갔습니다. 성전 회장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고 성전 뜰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성전이 평온하고 경건한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알록달록 예쁜 꽃들과 아름다운 성전을 보며 즐거웠습니다. 성전에 관한 영화도 보고, 모두가 성전 사진이 실린 작은 카드도 받았습시다.

파나마에 사는 열한 살 난 마이클 지(오른쪽)는 가라테(태권도 비슷한 일본 호신술-움긴이) 수업 시간을 좋아합니다.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학업 성적이 뛰어나서 "일일 교장 선생님"이 되어 본 적도 있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용감한 선교사입니다. 집 근처에 국제 박람회장이 열렸을 때 교회에서도 그곳에 안내소를 설치했습니다. 마이클은 부모님과 함께 박람회장 입구에서 서서 사람들에게 교회 안내 책자를 나눠 주며 교회 안내소에 다녀가도록 권했습니다. 친구 가족에게는 전도 카드를 주었으며, 선교사들은 친구 가족에게 교회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마이클은 전임 선교사가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들 이야기에 그림, 사진, 경험, 간증 또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면 제목란에 "Our Page"라고 쓴 후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다음 주소로 보내주세요.

Liahona, Our Page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원고를 보낼 때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름과 성별, 나이, 부모님 이름, 소속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을 써 주세요. 어린이의 사진과 원고를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출물은 분량을 조절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어느 날 밤,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타 버린 꿈을 두 번이나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자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꿈을 다시 꾸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잠이 들자 이번엔 아름다운 들뜰에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더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니비아 앤젤리카 에이, 10세, 멕시코



제레마리아 피, 10세, 사모아



내가 내린 중요한 결정

레베카 쇼
실화에 근거

“그들의 자녀는 나이 여덟 살일 때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27)

엄마는 “니콜, 오늘 밤에 존슨 부부 선교사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분들이 일러 주신 대로 기도했니?”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 아직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존슨 장로님과 존슨 자매님은 우리 와드에서 봉사하시는 부부 선교사입니다. 두 분은 가정의 밤에 참석하여 제게 선교사 토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껏 교회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곧 여덟 살이 되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에 존슨 장로님과 존슨 자매님은 조셉 스미스가 기도를 하여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침례를 받을 것인지 알기 위해 기도를 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존슨 자매님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해. 성신은 그런 방법으로 참된 것을 알려 주시거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처럼 열네 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존슨 장로님은 토론을 하시면서 컵을 쌓아 탑을 만드셨습니다. 존슨 장로님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탑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슨 장로님은 “교회의 기초가 왜 것처럼 튼튼하다고 생각하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문득, 지난 주에 배운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교회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존슨 장로님은 “그래 맞아. 우리에게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단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엔 존슨 자매님이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을지 기도를 해 보았니?”

“아니, 아직이요.”

존슨 자매님은 “침례를 받고 싶니?” 하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대답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저 어깨만 으쓱하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은 자기가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저도 물속에 잠기는 것을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걱정되는 건지 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존슨 자매님은 “책임은 진다는 게 두려운 거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존슨 자매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면 책임도 따라오는 것이라고 엄마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결정을 올바르게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한 도움은 성신을 통해 옵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적인 인도를 얻음,”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6쪽.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빠처럼 교회에 나가는 걸 그만두면 어떡하지?

존슨 자매님은 “여덟 살이 되면, 침례를 받지 않아도 네가 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단다. 하지만 침례와 확인을 받고 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그게 바로 성신의 은사를 받는 이유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제가 앞으로 지켜야 할 계명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담배와 술과 약물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존슨 부부 선교사님이 맥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침례 받는 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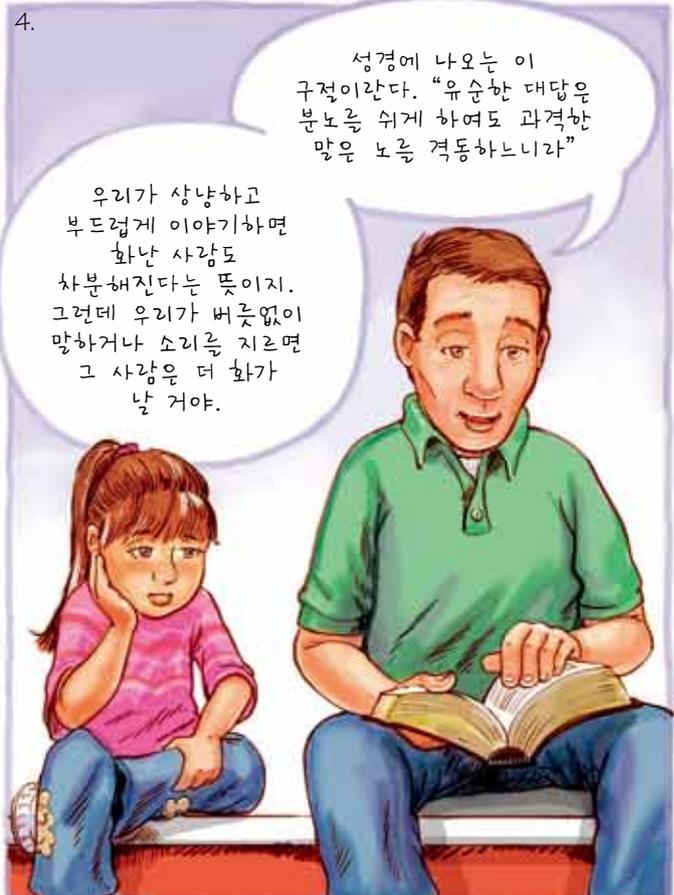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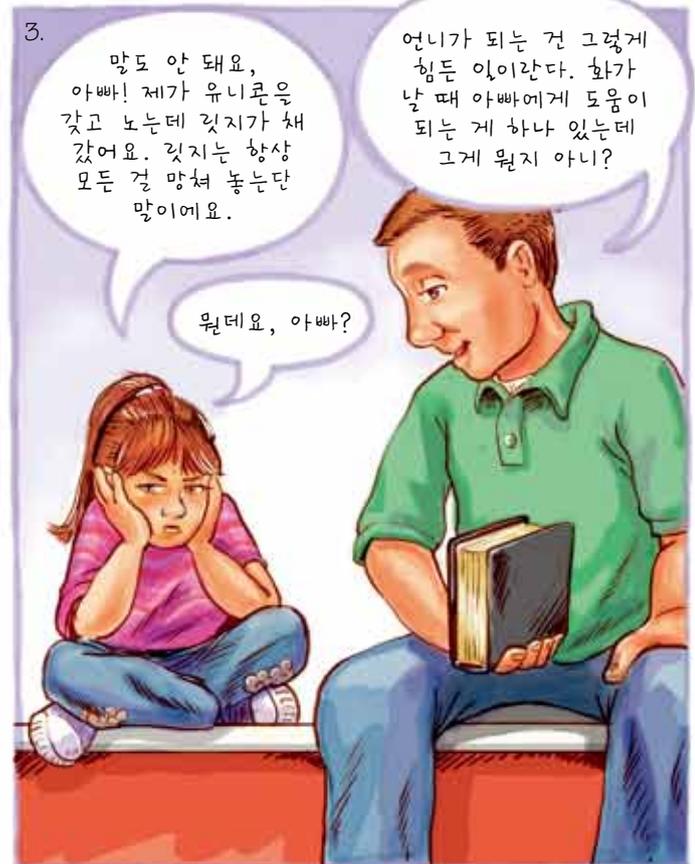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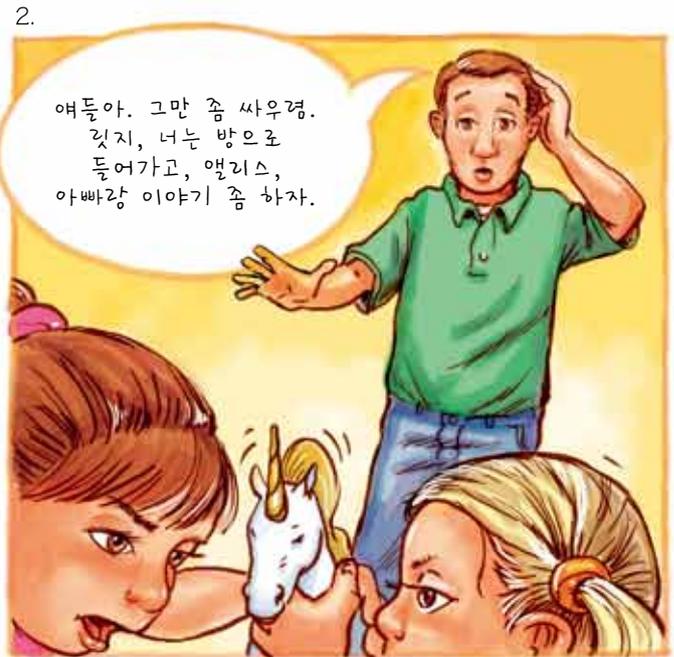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성신께서 도와주실 거란 사실이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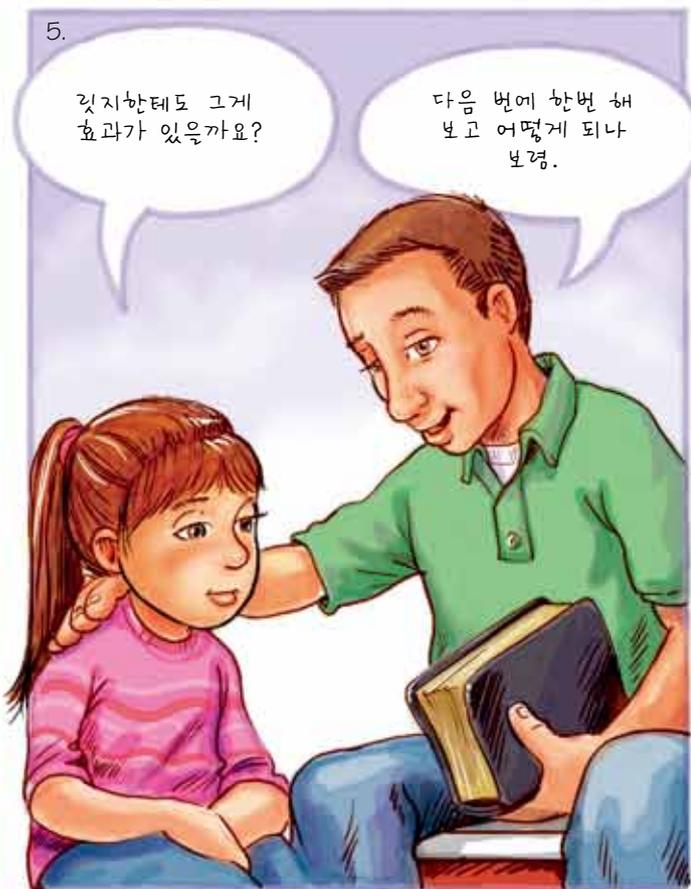
저는 방에 들어가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 침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제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유순한 대답

로라 헌터
실화에 근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언 15:1)





7. 엘리스는 아빠가 해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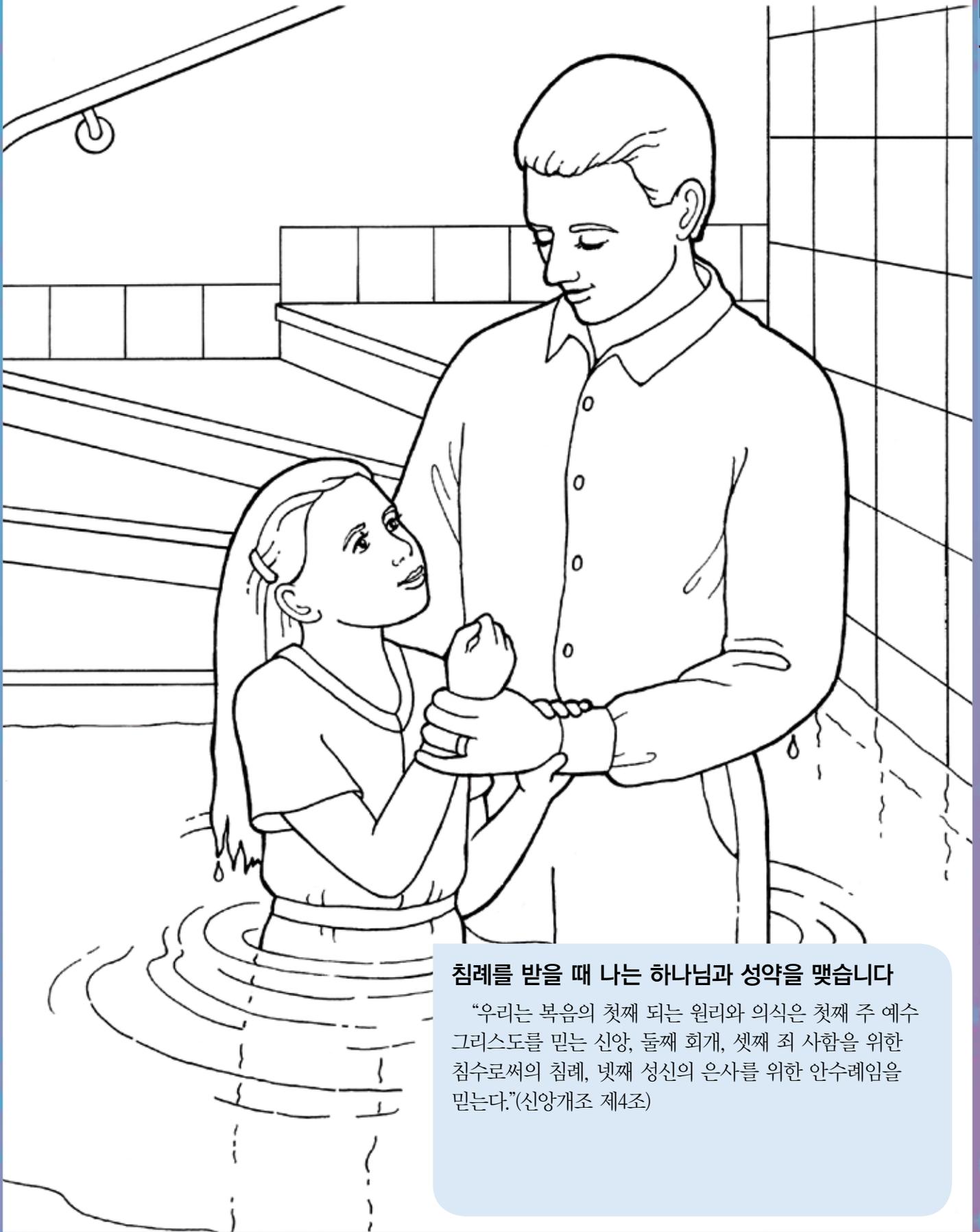
8.





화가 났을 때 유순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유순한 대답을 하도록 기억을 되새겨 주는 물건을 만들어 보세요.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셔츠나 문, 또는 책이나 그외 다른 것에 붙여보세요.





침례를 받을 때 나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신앙개조 제4조)

국제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색인 작업자

히카리 로프터스
교회 잡지

세 상 어디를 가든 자신의 조상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상 찾는 일을 편리하고 쉽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다.

FamilySearch 색인 작업은 2006년에 온라인으로 첫 선을 보인 후 전 세계의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작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색인 작업은 실제 기록에 수록된 정보(마이크로 필름에 담긴 기록처럼)를 검색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작업이 개시된 이후 후기 성도와 비후기 성도가 참여한 122,000명의 색인 작업자들이 547,978,000 건의 기록에 대한 입력을 마쳤다. 이렇듯 FamilySearch 색인 작업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색인 작업을 협의 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을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색인 작업하는 것이다.

“우리가 색인 작업을 하는 이름 중에서 비영어권의 이름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FamilySearch의 제품 마케팅 책임자인 짐 에릭슨은 말한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더 많이 참여시켜 비영어권 이름의 색인 작업 능률을 더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영어 기록의 색인 작업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비영어 국제 기록의 증가세가 훨씬 빨라지고 있다. FamilySearch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고 있는 정부와 기록 보관소의 수가 늘면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나라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에릭슨 형제는 말한다.

우선 FamilySearch 직원들은 정부와 도서관, 기타 여러 출처에서 기록을 가져다가 디지털 복사본을 만들고, 복사본은 “배치(묶음)”라고 하는 작은 그룹으로 만들어져, 자원봉사자들이 이 배치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FamilySearch에 로그인해서 배치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화면에 뜬 자료를 입력한다. 이 자료는 나중에 가족 역사 탐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각 배치에는 자원 봉사자가 약 30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분량이 들어 있다고 FamilySearch의 색인 작업 프로젝트 코ордин레이터인 케이티 게일은 말한다.

FamilySearch 색인 작업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은 물론 선교사 봉사나 학교, 기타 교육 기관에서 해당 언어를 배운 사람들도 자원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이 거주했던 또는 거주하는 나라에서 색인 작업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이 건축 중이었을 때, 우크라이나 성도들은 성전이 완공되면 성전에 제출할 이름을 찾아 색인 작업을 하는 사업에 참여했다. 성전이 헌납될 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북미 및 남미, 유럽의 색인 작업자 401명이 키예프 프로젝트를 수행한 덕분에 성도들은

200,000명 분에 해당되는 우크라이나 이름을 성전에 제출할 수 있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색인 사업이 발전하면, 색인 배치를 제공하는 FamilySearch

관계자는 성장 가능한 지역을 찾은 다음, 가능하다면 해당 지역에 관련된 색인 프로젝트 출범에 박차를 가한다.



색인 작업이 현재의 속도로 진행된다면, 일부 국가의 경우 현재 제공받은 배치를 입력하는데 최대 10년 정도가 소요되고, 따라서 색인 작업자가 더 필요하게 된다.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다량의 배치 입력 작업을 끝내려면 평균 2년 내지 6년 정도가 소요된다.

“프로젝트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라고 FamilySearch 색인 작업 운영 책임자인 폴 스타키 형제는 말했다. “색인 작업의 전반적인 목적은 이 기록들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보 기록이 담긴 약 240만 롤의 마이크로필름을 화강암 산의 동굴 기록 보관소에 보관 소장하고 있다. 이 양은 색인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150억 건의 기록에 해당된다. 이것 말고도 전



사진: 헬든 시먼다스. © FR

세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록들이 있다.

“탐구자들이 [이름과 개인 기록을 찾는 일을 하면] 자신의 마음을 그들 조상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라고 에릭슨 형제는 말했다. “교회 회원들은 색인 작업이 끝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조상의 가계를 문서로 정리하고 성전에서 구원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간편하게 색인 작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게일 자매는 말했다. “사람들이 색인 작업을 가족 역사라는 영원한 시각의 관점에서 인식한다면, 색인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자원 봉사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색인 작업에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라고 에릭슨 형제는 말했다. “교회 회원 여부에 상관 없이 친구 및 가족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 회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일한다면 서로 즐겁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

*FamilySearch
색인 작업
코ордин이터에게
자원 봉사자를
위한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색인 작업을
하는 것이다.*

당장 색인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 indexing.familysearch.org에 접속하여 시작하십시오.

드롭다운 메뉴에 있는 일곱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색인 작업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고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훈련용 배치로 연습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익힙니다.

색인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국가별로 나와 있는 프로젝트에서 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에콰도르에서 자라나는 자립심

헤더 우리글리
교회 잡지

“자립의 원리를 실천할 때 개인은 자유로워지고 시민의 책임감도 커집니다.”라고 제13대 교회 회장이었던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이 1975년에 후기 성도 자선회 프로그램인 벤슨 농업 식품 연구소 법인 취임 연설에서 말했다.

이 같은 자립의 철학에 따라 벤슨 연구소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여 식품 생산과 영양 섭취, 보건을 개선하였으며 세상의 궁핍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

2009년에 벤슨 연구소 사람들은 농업이 번창한 에콰도르를 방문했다. 하지만, 세계 보건 기구에 의하면, 인구가 1,500만 정도되는 에콰도르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 중 23퍼센트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벤슨 연구소가 벌인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영양 실조의 통계수치가 낮아지고 있다.

여섯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는 벤슨 연구소가 오기 전에는 가족을 부양하기가 힘든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엄마라는 것이 너무 슬펐고 또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끼에 해당하는 음식이나 빵 한 조각조차 아이들에게 주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벤슨 연구소와 함께 일하는 가족들은 개량된 농업 기술과 윤작, 소규모 축산, 균형된 영양섭취, 개인 위생, 적절한 식품 준비 등에 관해 배웠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 도입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고통스럽게 겪었던 굶주림은 줄어들게 되었다. 가족들은 식량 생산의 급격한 증가로 먹을 식량을 저장하는 한편 남은 식량을 팔아서 수입도 생겼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식단과 위생이 개선되면서 건강도 좋아졌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과일을 먹게 되자 예전의 식단에서 부족했던 영양분도 보충할 수 있었다.

“예전엔 학업을 잘 따라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현지의 한 교사는 말했다.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후, 아이들의 학습 속도가



벤슨 연구소와 함께 일하는 가족들은 식단과 위생의 개선으로 건강 상태가 더욱 양호하게 되었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잦은 병치레를 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전 같으면 수업 중에 조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으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서 아이들이 훨씬 건강해 보이고 원기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지 활동은 모두 검증된 자립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립 원리와 더불어 벤슨 연구소가 수십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을 기초로 사업을 펼친 결과 전 세계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있다. ■

에콰도르의 프로젝트에 대한 비디오는 <http://lds.org/church/news/growing-self-sufficiency-in-ecuador>에서 영어 및 스페인어로 볼 수 있다.

온 세상에게

사도들이 중미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세상에 불빛을 높이 치켜 드십시오”

“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리셀 벨라드 장로와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2011년 1월에 임무 지명을 받고 중미를 방문하던 중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회원들에게 말했다.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두 사도는 회원들에게 기도와 경전 공부, 성전 봉사, 가정의 밤, 안식일 준수, 주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주변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면서 가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권고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벨라드 장로는 여러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고 지역 신권 지도자들과 부모 및 기혼 부부, 청년 독신 성인, 청소년들을 위한 노년의 모임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또한 네 개의 선교부에 속한 1,100명의 선교사와 여러 스테이크의 회장단, 감독, 지부 회장들과 모임을 가졌다.

모잠비크를 다시 찾은 스코트 장로

“여러분 역시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최근에 아프리카 남동 지역을 방문하던 중 모잠비크 성도들에게 말했다. 스코트 장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나라를 헌납한 지 11년이 되는 2011년 1월에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 교회는 크게 발전해 있었다.

스코트 장로가 모잠비크를 처음 방문했던 당시 이곳의 회원 수는 40명에 불과하였고, 이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선교부에 속해 있었다. 그랬던 교회가 이번에 스코트 장로가 두 번째로 이 나라를 찾았을 때 그 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교회 회원 수는 5,000명이 훌쩍 넘었고 회원들은 전국에 두 개의 지방부와 열아홉 개 지부, 세 개의 그룹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다. 모잠비크에는 모잠비크 마푸토 선교부가 있으며, 이 선교부는 모잠비크 전국과 앙골라를 담당하고 있다.

떠나기에 앞서 스코트 장로는 시간을 내어 모잠비크의 교회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을 만나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닐 엘 앤더슨 장로가 제공한 사진

태평양 지역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을 만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

베드나 장로와 앤더슨 장로가 태평양 지역의 성도들을 격려하다

태평양 지역의 교회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최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와 닐 엘 앤더슨 장로의 가르침을 받고 영적으로 고양되고 유익한 깨우침을 받았다.

베드나 장로는 통가와 뉴질랜드, 하와이, 마셜 제도의 선교사들 및 회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마셜 제도의 회원들에게 베드나 장로의 방문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 까닭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처음으로 이곳을 찾았기 때문이다.

앤더슨 장로는 임무 지명을 받고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방문했다.

“바다의 섬들과 지상의 여러 지역을 여행할 때면, 세상 어디에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라고 베드나 장로는 말했다. “교회는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고, 성장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충실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현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성역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lds.org/study/prophets-speak-today에 접속하기 바란다.

신앙과 가족 단합에 대한 열원으로 성전을 찾은 뉴칼레도니아 회원들

1월에 뉴칼레도니아에서 온 147명의 교회 회원들이 뉴질랜드 해밀턴에서 한 달을 머물며 그곳 성전에 참석했다.

연례 행사로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 대부분은 처음으로 후기 성도 성전 예배에 참석한 것이다.

“뉴칼레도니아에는 성전이 없고, 대부분 회원들의 가족은 정말 가난합니다.”라고 일행 중 한 사람인 조르주 귀디는 말했다. “부모들은 일년 내내

일해서 여행 경비를 저축합니다.” 성전은 이 회원들의 집에서 1,600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 회원들이 그토록 뉴질랜드 성전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성전에서 얻는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가족을 단합시켜 주리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제라드 몽담 뉴칼레도니아 지방부 회장은 “성전을 방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

세계 단신

솔로몬 제도 총리에게 가족 선언문을 전달하다

교회는 2011년 1월 21일 금요일에 있었던 간소한 기념식에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리아호나 및 Ensign, 2010년 11월호, 128쪽)을 솔로몬 제도의 대니 필립 총리에게 전달했다.

지역 칠십인인 더크 스미버트 장로와 교회의 다른 대표자들은 총리 관저에 모인 자리에서 총리에게 가족 선언문과 가족 조각상을 전달했다.

엘살바도르 성전의 일반 공개 날짜 발표

교회의 제일회장단은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을 초대하여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성전 안팎을 둘러볼 수 있는 성전 일반 공개를 일요일을 제외하고 2011년 7월 1일 금요일부터 2011년 7월 23일

토요일까지 하기로 했다.

문화 축전은 2011년 8월 20일 토요일에 열리며, 뒤이어 다음 날에는 성전 헌납식을 거행한다.

회원들이 재능을 나누면서 교회 건설에 기여하는 사이트

Helping in the Vineyard는 교회 회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수가 크게 늘어감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교회 웹사이트이다. 프로젝트에는 번역과 FamilySearch 색인 작업, 사진, 비디오 및 이미지에 설명 달기, 편집 작업이 포함되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지역이면 어디에서든 참여가 가능하다.

Vineyard 개설자들은 자원봉사자 10,000명을 등록시켜 2011년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회원들은 vineyard.lds.org에서 로그인하여 서명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이 사이트는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다.

박물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전시회를 열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소재한 교회 역사 박물관에서는 창조적 학습 환경과 어린이 미술품을 특집으로 한 두 개의 새로운 전시관을 선보였다.

The Gospel Blesses My Life(내 생활을 축복하는 복음)을 주제로 한 전시관에서는 전세계 42개국의 어린이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으며 그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생활에 주는 축복을 묘사한 것이다.

A Book of Mormon Fiesta: A Latin American Celebration(몰몬경 제전: 라틴 아메리카 축제)을 주제로 한 전시관에서는 교회의 라틴 전통을 기념하고 라틴 아메리카 회원들의 이야기를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둔 대화형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churchhistorymuseum.org를 접속하면 전시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애독자 편지

더 강해지려는 용기

리아호나에서 읽은 권고와 조언을 매일 깊이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결심은 더욱 단호해집니다. 잡지는 더 강해지려는 용기를 일깨워줍니다. 레이먼 크리스토퍼 히포리토 빌라루나, 필리핀

불가능한 문제의 해결을 돕는 리아호나

리아호나에 실린 메시지는 제가 계속 강해지도록 해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메시지를 다시 읽으면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입니다. 제일회장단의 메시지와 후기 성도의 음성을 계속 실어주세요.

에블린 포슨, 가나

이것이 진리이다

리아호나는 15년 전에 제가 교회에 들어온 이후 줄곧 제 인생을 인도해준 안내자였으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영의 속삭임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때 리아호나는 제게 위로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전세계 성도들의 이야기와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을 읽으면, 저는 마음에 위안과 평안을 받으며, 이것이 진리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펠리페 우르비나, 코스타리카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행복으로 향하는 참된 길”, 28쪽: 가족과 함께 기사를 읽고,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은 미래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가 의로운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교육에서 발휘되는 힘”, 42쪽: 이 기사를 쓴 필자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께서 교육에 대해 하신 다음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받을 수 있는 교육에 모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희생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희생과 그에 따른 축복에 대해 토론한다.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54쪽:

이 기사를 가족과 함께 읽거나 요약한다. 에즈라는 어떻게 준비하여 시련을 이겨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여러분의 가족이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토론한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60쪽: 가족이 함께 기사를 읽는다. 가족들에게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관해 이야기한다.



우리 딸아이가 던진 질문

와드 감독으로서 나는 어린 아이들이 가정의 밤에서 가르칠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기회를 줄 것을 권고했다. 내 아내와 나도 그 권고를 실천하기로 했다.

우리 아들이 먼저 가르쳤는데, 기도에 관한 공과가 훌륭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딸아이가 가르칠 차례였다. 딸아이는 겨우 몇 달 전에 침례를 받았다. 딸이 가르칠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였다. 그 아이는 몇 가지 질문을 연달아 했고, 우리는 차례로 대답을 했다. 질문을 마친 다음 딸아이는 간증을 하고 공과를 마쳤다.

우리 아들이 큰 소리로 말했다. “넌

질문만 했지 공과를 가르친 게 아니잖아.” 그러나 아내가 질문 중 하나에 대답을 하면서 가족 단위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훌륭한 가족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을 때 나는 감동을 받았다고 가족에게 말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막내 딸이 “예수님이요”라고 소리쳤을 때 내 마음에 감사를 그득히 느꼈다고 말했다. 그외 여러 가지 답변에도 탁월한 통찰력이 엿보였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물론 내 아들이 예상했던 대로 딸아이가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그 아이의 공과와 다른 자녀들이 가르쳤던 공과 때문에 나는 주마다 갖는 가정의 밤이 즐겁다.

리처드 익페그부, 나이지리아

굳건한 기초를 쌓아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광 대한 오하이오 강에서 멀지 않은 곳, 캔터키 주 루이빌 변두리에는 앵커리지라 불리는 작은 도시가 하나 있다. 옛적에 한 유람선 선장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을 내려 정착한 이 농촌은 여러 다양한 신앙을 지닌 이들에게 고향이 되었다.

그곳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플라타너스, 떡갈나무, 밤나무, 버드나무가 우거진 숲 아래쪽에서 신비한 세계를 탐험하는 동안 나는 기독교의 기본 원리 중 하나를 배웠다. 예수님께서선 선하고 고결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위대한 교사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배웠다.

나의 선한 부모님은 그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 충실하셨다. 부모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도둑질은 나쁜 일이라고 알려 주셨다.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 참되다고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참되다고 믿는 것만큼이나 정당하다고 가르치셨다. 양쪽이 따르는 믿음이 기본 원리 면에서 다르다 할지라도 말이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철학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참된 영원한 원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를 판단할 권리와 책무는 지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개인적인 관점만이 성립된다.

그러한 도덕적 상대주의가 내 생각의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물론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속죄와 신권 권세, 선지자의 필요성을 믿기 어려웠다. 사실 내가 개종을 하기까지는



간증은
확고해질 수
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 세월 동안 끊임없이 나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지, 진리와 오류, 죄와 그 결과에 대한 영원한 원리를 확립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품으며 알고자 애를 썼다.

놀랍게도 나는 영을 통해 확신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 확신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겸손해진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처음에는

침례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물몬경, 그 다음에는 조셉 스미스가 참된 선지자라는 증거가 왔다. 현대에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에 관한 증거도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왔다.

결국 복음이 참되다고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아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작은 증거들이 여러 개 쌓여 절정에 달하자 내 신앙이 확고히 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며, 그것은 간증을 허물려는 도전에 맞서는 방법이 되었다.

우리는 주님께 답을 구해야 할 신성한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한 간증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자신을 영적으로 양육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계획에서는 우리가 증거를 받은 원리에 대해 계속 의문을 품는 일이 이롭지 않다는 점 또한 안다. 사실 그것은 배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제 나는 젊은 시절에 분투하던 도덕적 상대주의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안다. 내 간증이 도전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내가 이미 받은 증거를 신뢰하고 그 증거에 따라 생활하려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평안에 이르는 길이고,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

교회 복지 계획

자립과 봉사 75주년 기념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게으름으로 생기는
 불행을 없애고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심과
 근면과 검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 Conference Report,
 1936년 3쪽;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2002), 115쪽 참조.



목차

- 82 제일회장단 서신
- 83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십시오
- 84 75주년을 맞은
검약하는 삶
- 85 자립 정신의 확립
- 92 구주를 따라 온정
어린 봉사에 더욱
힘씀시다
- 93 여럿이 힘을 모아
- 96 복지 원리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47 East Sou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1200

2011년 6월 1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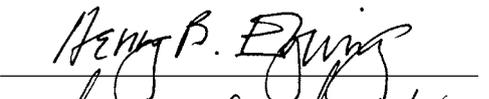
올해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기사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역사가 소개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 분야에서 교회가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되어 있고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복지 원리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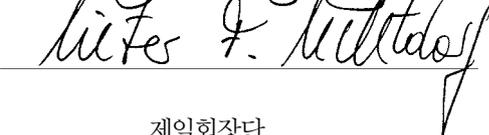
또한 이번 기념일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굳건히 자립하며, 구주께서 그러셨듯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지원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이 특집 기사를 읽으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지와 자립 원리들을 되새기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제일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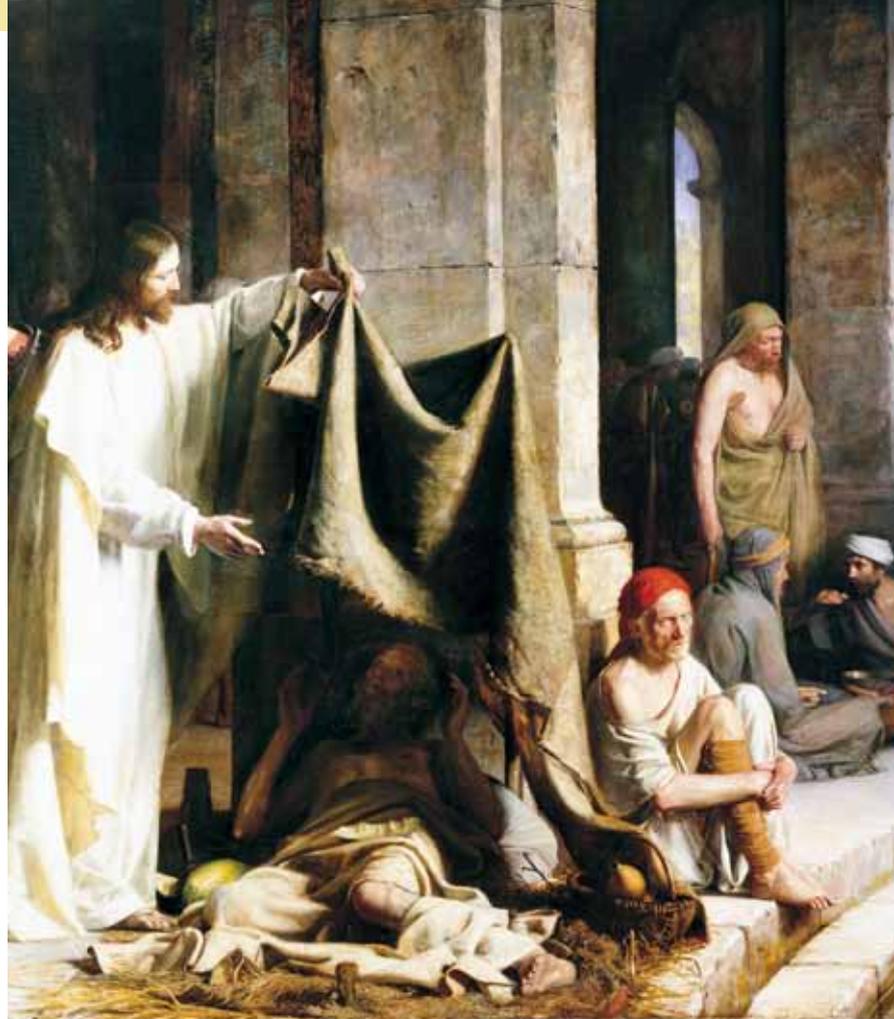
주님의 방법으로 배 푸십시오

주 식 시장이 폭락하여 엄청난 손실을 본 시기가 있었다. 도산한 은행과 금융 기관이 속출했고, 실업률은 하늘로 치솟았다.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정부가 개입하여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 계획으로 나라에 떨어진 경제를 되살리려 했다. 식량과 기타 생필품을 구하려고 어쩔 수 없이 공공 기관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앞에서 설명한 1930년대 대공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절과 현재를 막론하고 교회가 마련한 복지 계획 덕분에 재난과 세계 경제 대공황 및 불경기를 비롯하여 가족과 개인에게 불시에 닥친 작은 시련의 시기에도 “스스로 돕는 자[들은 도움일]” 받을 수 있었다.

1936년에 가셔야 현재 시행되는 복지 계획을 도입하였으나 모든 경륜의 시대 어느 때에나 성도들은 겸약하는 생활 원리를 실천했다. 복지 계획을 만든 분은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고는 교회의 헌물로 유지되어야 하나니, 과부와 고아는 부양을 받아야 하며 가난한 자도 또한 그러하니라.’(교리와 성약 83:6) 그리고는 ‘그러나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교리와 성약 104:16)라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²

주님의 방법으로 배푸려면 자신이 먼저 자립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립하도록 도와야 한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헌신적인 남성과 여성은 영감에 따라 진척되는 이 방대한 사업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는 수고만으로는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방법에 따라 신앙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³



금년에 복지 계획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면서 후기 성도들은 자립,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 돌보기,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등과 같은 기본 원리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이 원리에 따라 생활하면 고통을 덜고, 훌륭한 성품을 키우며, 단결을 도모하는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경륜의 시대
어느 때에나
성도들은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에 따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았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2002), 115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주님의 방법”, 리야호나, 1978년 2월호, 11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리야호나, 1978년 2월호, 11쪽.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 사업의 진정한 목적은 기부자와 수혜자인 교회 회원들이 훌륭한 성품을 형성하고, 그들 내부 깊은 곳에 내재된 가장 훌륭한 것을 이끌어내며, 풍부하게 잠재된 영이 결실을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자 사명이며, 이유입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1871~1961)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in Glen L. Rudd, Pure Religion: The Story of Church Welfare Since 1930(1995), 301쪽.

81쪽 사진들-위:
1937년 솔트레이크
시티 감독의 중앙
창고에서 식품을
내리는 회원들. 가운데:
밭에서 모종을 심는
필리핀 청소년. 아래:
1948년 유타 주에
있는 한 스테이크
복지 농장에서 일하는
회원들.



75주년을 맞은 검약하는 삶

초기 성도들은 교회 복지 계획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립하는 생활과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았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만 축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폭을 전 세계로 넓혀 온 인류를 축복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¹

교회가 설립되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감독의 창고와 십일조 사무실이 작은 규모로 건립되었다. 조셉 스미스는 1830년대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금식 헌금 모금을 실시했다.² 십일조 원리도 이 시기에 가르쳐졌다.(교리와 성약 119편 참조) 십일조와 금식 헌금은 노동과 농산물, 기타 일용품으로 지불되었다. 이러한 자원들이 지금과 유사한 방법으로 배부되게 하는 일은 감독과 지부 회장이 담당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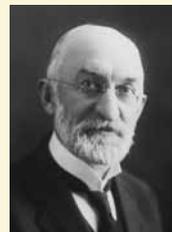
많은 초기 성도들은 자립하고자 분투했다.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단합하여 생계를 유지할 방법들을 찾아냈다. 일부는 교회 건물 건축 일과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또 다른 이들은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내다 팔아 자신과 가족을 부양했다. 함께 애쓴 결과, 성도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내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이 시대에 겪는 어려움은 그때와는 다르지만 후기 성도들은 여전히 구주께서 주신 가르침과 이전 세대가 보인 모범에 따라 스스로를 부양하고 나아가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330쪽.
2. Howard W. Hunter, “Fast Day”, *Ensign*, 1985년 11월호, 72쪽 참조.
3. Glen L. Rudd, *Pure Religion*(1995), 2쪽, 4쪽 참조.

이 연대표에 나오는 내용은 따로 명시되지 않은 한 다음 출처에서 나왔다. Susan Clayton Rather, *Supporting the Rescue of All That Is Finest*(2005); Glen L. Rudd, *Key Moments in Church Welfare Services*(2008); Glen L. Rudd, *Important Events for Historical Church Welfare*(1999); Glen L. Rudd, *A Brief History of the Church Employment Program*(1998); Glen L. Rudd, *Pure Religion*(1995).



1936년

- 4월 6일: 연차 대회에서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과 그 보좌들이 교회 안전 계획을 발표하다.
- 10월: 교회에 본부 복지 위원회를 조직하다.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문자 그대로 잠시나마 우리가 직접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느낄 박탈감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감독에게 헌물을 바칩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멋진 일입니다.”

조셉 비 워스린(1917~2008)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금식의 법,”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90쪽.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 성도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마테라에 있는 교회 소유 포도원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 포도원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보낼 건포도 수백 톤이 생산된다.

자립 정신의 확립



왼쪽 위: 1947년 네덜란드 성도들이 독일 성도들에게 보낼 감자를 수확하여 싣고 있다.
위: 에콰도르 성도들은 식량 생산 훈련을 받아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다.

복지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복지 계획은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으며, 생활 방식으로서 자립을 장려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자립을 “자신과 가족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현재적 및 영적 복지에서 필수 요소라고 가르쳤다.²

자립을 하겠다는 희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감리 감독인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은 그 점을 지적했다. 버튼 감독은 우리가 자립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 있게,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쭙어볼 수 있습니다.”³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자립을 이룬 후에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다. 심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일에서 진정 구주를 닮는 것은 오직 우리가 자립하였을 때 가능합니다.”⁴

자립을 이루려면 (1) 교육, (2) 건강, (3) 취업, (4) 가정 생산 및 비축, (5) 재정, (6) 영적인 힘 등 안정된



1937년
• 교회가 최초로 솔트레이크 시티에 감독의 중앙 창고를 건립하다.



1938년
• 솔트레이크 시티에 복지 광장 부지를 구입하고 착공하다.
• 4월: 교회 안전 계획을 '교회 복지 계획'으로 개명하다.
• 8월 12일: 솔트레이크 시티에 최초로 데저렛 검약 상점을 열다.



삶에 필요한 요소를 고루 갖춰야 한다.

1. 교육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라고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88:118)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교육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육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며, 모든 교회 회원의 의무입니다. …… 주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과 손을 교육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는 후기 성도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사는 로베르토 플레테 곤잘레스는 교육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기에 선교 사업에서 귀환한 후에 바로 대학에 등록했다. 아버지는 로베르토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고, 가족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로베르토는 학업을 중단하고 자신과 어머니와 누이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에 들어갔다. 로베르토는

이러다 학교를 제대로 마칠 수는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몇 주일 후,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영구 교육 기금을 발표했다. 개발 도상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은 이 “대담한 시도”로 “대를 이어 물려받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⁶ 로베르토는 영구 교육 기금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았고 덕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 기금으로 학비 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꾸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섰고, 로베르토는 결혼하여 영원한 가족을 이루겠다는 신앙을 얻게 되었다.

로베르토는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의대를 졸업하고 교회 회원으로서는 최초로 도미니카 의과대학 국가

“이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참된 것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할 것이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더 훌륭히 봉사하도록 그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Education for Real Life,” *Ensign*, 2002년 10월호, 21쪽.



1939년

• 복지 광장에 첫 번째 창고가 세워지고 통조림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다.



1940년

• 8월 27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복지 광장에 대형 곡물 창고를 헌납하다. 이를 세우기 위해 교회 회원들이 7만여 시간에 달하는 노동력을 제공했다.

1941년

• 4월 20일: 최초로 세워진 복지 광장 우수 가공 공장이 가동되다.



왼쪽 끝: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학업을 추구하는 후기 성도 학생들. 왼쪽: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운동이 중요하다.

위원회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로베르토는 가장 훌륭한 성과는 가정에서 거두었다고 한다. “빈곤이 대물림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집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제 자녀가 그 명에서 벗어나 예전에 제가 살았듯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지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providentliving.org 에서 the Education and Literacy편을 선택하여 보거나 후기 성도 청소년이 고등 교육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웹사이트인 besmart.com에 접속한다.

2. 건강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창세기 1:27참조) 때문에 우리 몸은 곧 성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몸을 대해야 한다.(고린도전서 3:16~17참조)

교리와 성약 89편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은 주님께서 1833년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로 주신 건강에 관한 율법이다. 그 말씀에 실린 가르침에 따르자면 우리는 영양식을 취하고 해로운 물질을 삼가야 한다. 지혜의 말씀을 계시 받은 후부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우리의 심신을 파괴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는 모든 물질과 습관을 삼가야 한다고 가르쳤다.⁷

피지에 사는 세이니메레 발레나카지는 십대 시절에 비회원 친구 몇 명과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지혜의 말씀에 관한 교훈을 배웠다. 세이니메레의 친구를 포함하여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다수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라고 권했다. 그러나 세이니메레는 이렇게 대처했다. “저는 평생 복음 표준대로 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그 제안을 거절했죠.”

세이니메레는 지혜의 말씀을 지킬 때 몸이 건강한



세이니메레 발레나카지는 지혜의 말씀을 따를 때 육체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온다는 점을 안다.

“참으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전 안으로 섭취하는 것과 성전 위에 입히는 것, 성전을 대하는 태도, 성전을 사용하여 행하는 일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Ye Are the Temple of God,” *Ensign*, 2001년 9월호, 18쪽.



1948년
• 3월 1일: 교회가 솔트레이크시티에 지역 취업 사무소를 열다.



1960년
• 3월: 새로운 복지 광장 우유 가공 공장이 완공된다.

1963년
• 파스타 제조 공장과 새로운 복지 광장 통조림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다.



맨위: 멕시코 취업 자원 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젊은 자매. 위: 오세이아스 포르티나리는 브라질 상파울루 취업 자원 센터에서 "일자리를 잃은 회원들이 더 나은 삶이라는 미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축복도 받는다는 것을 안다. "성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았어요. 표준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알아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providentliving.org에 접속하여 the Physical Health 부문을 참조한다.

3. 취업

많은 와드와 지부에서 취업은 자립하고자 애쓰는 회원들이 넘어야 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회원들은 신권 정원회와 와드 평의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저 능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두 가지 원리,"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56쪽.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신권 정원회와 와드 평의회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유용한 지역 자원을 찾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개인적으로 이끌어 주고,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회원들이 힘을 합쳐 일한다면 성공적인 취업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전 세계 일부 지역에 취업 자원 센터를 세웠다. 현재 56개국에 300곳이 넘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진로 워크숍과 인맥 관리 지도, 개별 취업 상담 등을 제공한다. 새로운 교회 웹사이트 LDSjobs.org에도 구직자와 구인자, 교회 지도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실려 있다.

브라질에 사는 오세이아스 포르티나리는 직장에서 해고된 뒤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두 달여를 보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오세이아스는 상파울루 지역 취업 자원 센터에서 봉사를 하겠다고 자원했다. 오세이아스는 그곳에서 직업을 찾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면접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찾는 더 좋은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곳에서

1973년

- 교회가 가족들을 도우려 후기 성도 사회 서비스를 조직하다.



1976년

- 복지 시설이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걸쳐 확장되다.
- 3월 29일: 새로운 복지 공장 감독의 창고가 완공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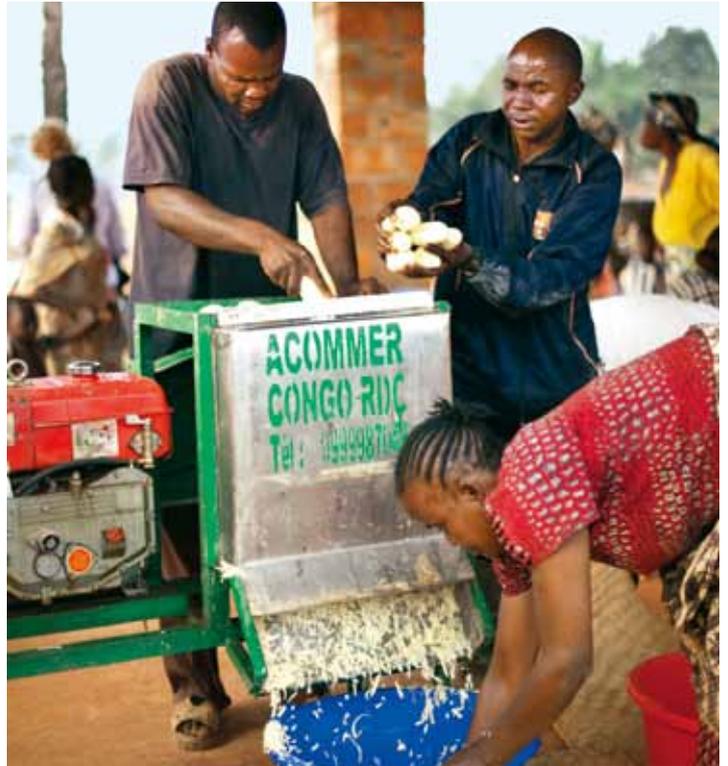
1978년

- 재난을 당한 전 세계 수백만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교회가 비상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다.

개최한 진로 워크숍에 여러 차례 참여하면서 마침내 워크숍을 직접 가르치기까지에 이르렀다. 놀랍게도 오세이아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자 이내 여러 고용주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으며, 오래지 않아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다.

오세이아스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자원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일자리를 잃은 회원들은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이라는 미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LDSjobs.org, employment.lds.org에 접속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취업 자원 센터를 찾아간다.



4. 가족 가정 생산 및 비축

2007년에 교회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비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책인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가정 비축을 소개했다. 제일회장단은 전 세계 회원들이 기본 식량과 식수, 그리고 얼마 정도 돈을 저축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장려한다. 회원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매주 조금씩 돈을 저축하거나 몇 가지 식량을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계속한다면 회원들은 각자에게 적절한 만큼 가정 비축 물품과 재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⁸

베네수엘라 공화국 발렌시아에 사는 루고 가족은 그와 같은 권고를 듣고 나서 자신들도 가정 비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 가족은 매주 조금씩 음식과 물, 돈을 따로 떼어 모으기 시작했다. 얼마 되지 않는 양이었지만 몇 달 안 되어 어느 정도 비축 물품이 쌓였다. 그런데 그 해 후반기에 베네수엘라 노동자 파업으로 수많은 지역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오마르 루고 형제도



콩고 민주 공화국에 사는 가족들은 함께 주식인 카사바를 재배하고 뿌리를 가공하여 식량으로 쓰거나 장기 비축 식품으로 저장한다.

“이 새로운 [가정 비축]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그 지점에 도착하느냐 보다는 우리의 능력에 맞게 시작하고 계속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감리 감독, “가족 가정 비축: 새로운 메시지”, *리아호나*, 2009년 3월호, 14쪽.



1980년대
 • 미국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아르헨티나와 칠레,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에 취업 센터가 세워진다.

1981년
 • 교회가 복지 광장에 데저렛 검약 상점을 건설하다.



1982년
 • 9월 10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유타 주 옥덴에 있는 복지 시설들을 방문하다.



예산을 편성하여 가계 재정을 확고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데븐 스티븐과 마이켈라 스티븐 부부.

결국에는 실직을 하게 되었다.

루고 형제가 새 일자리를 찾기까지는 2년여가 걸렸다. 그 동안 루고 형제 가족은 미리 준비해둔 비축 식량과 저축한 돈으로 생활을 이어나갔다. 루고 가족은 미리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실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자신들이 조금씩 가정 비축을 하라는 권고를 따랐다는 것을 알기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⁹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providentliving.org에 접속하여 the Family Home Storage 부문을 보거나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가정 비축 책자를 참조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소하게 부양하기 위해 우리는 검소한 삶의 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즐겁게 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지나친 빚을 피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부지런히 저축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됨,”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8쪽.

5. 가족 재정

검약하는 생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수입과 지출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권고했다.

“여러분은 지출할 일이 있을 때, 검소하게 쓰시고, 구매를 할 때 자제하여 빚을 피하[도록] ……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빚을 모두 갚고 난 뒤 아주 적은 액수일지라도 저축을 한다면 ……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더 안전한] 피난처를 갖게 될 것이고, 또한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¹⁰

성공적인 가족 재정 관리는 수입조와 현금을 먼저 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주님을 먼저 생각할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다.

재정 관리를 잘 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여 금전 관리를 절도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 사는 데븐 스티븐과 마이켈라 스티븐은 처음 예산을 세웠을 때 매달 지출하는 금액만 대충 아는 정도였다. 그러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을 세우면서 “허황된 삶을 살기보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마이켈라는 말했다. “생각보다 가진 돈은

1983년

- 감리 감독단이 복지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지명되다.

1985년

- 교회의 인도주의적 서비스 프로그램이 시작되다.



1990년대

- 교회가 인도주의적 서비스 센터에서 전 세계 빈곤과 재해 지역 구호를 위해 의복과 기타 물품을 분류하다.

1996년

- 몇몇 나라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회가 비정부 조직으로 후기 성도 자선회를 창설하다.¹¹
- 복지 서비스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멕시코에 감독의 창고와 가정 비축 센터를 설립하다.
- 복지 광장 개보수 공사가 시작되다.

얼마 안 되었지만 가진 돈을 빈틈없이 관리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providentliving.org에 접속하여 the Family Finance 부분을 보거나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가정 비축 책자를 참조한다.

6. 영적인 힘

영성은 현세적 복지와 영원한 복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겪는다. 영성을 키우고자 분투한다면 시련을 잘 대처할 수 있고 밝은 미래를 희망할 수 있다.

마다가스카르 출신인 니리나 조세프선-랜드리아미하리소아는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니리나는 프랑스에서 처음에는 외로움과 향수병에 시달렸다. “기도를 하고 경전도 읽고 성령이 주는 부드러운 속삭임에 의지하여 위안을 찾으려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와 더욱 가까워지고 화평을 느끼게 되었죠.”

얼마 후 니리나는 친구를 사귀고 교회 안팎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향에서 온 슬픈 소식으로 니리나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어느 날 아침,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도 급작스러운 일이라 슬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날 몇 주일을 두고 밀려오는 외로움과 분노와 절망을 이겨내느라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냥 생활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죠.”

몇 달 후에는 한 친한 친구도 세상을 떠났다. 연이은 슬픈 소식에 니리나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 한 순간 니리나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앞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자신에게 힘을 주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하면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프랑스에 처음 왔을 때처럼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으며 성신에 의지하여 위안을 받으려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과 영원한 가족이라는 교리에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크게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주님과 함께한다면 ‘막다른 길’에 다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분께서 마련하신 계획은 바로 행복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자립과 검약하는 삶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 주님의 방법으로 배움: 복지에 대한 지도자 지도서 개요를 providentliving.org에서 찾아 본다.

주

1. 주님의 방법으로 배움: 복지에 대한 지도자 지도서 개요(소책자, 2009), 1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Guiding Principles of Personal and Family Welfare,” Tambuli, 1987년 2월호, 3쪽; *Ensign*, 1986년 9월호, 3쪽 참조.
3.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일의 축복,” *리아호나*, 2009년 12월호, 37쪽.
4. 로버트 디 헤일즈, “복지에 대한 복음적 관점: 행하는 신앙,” 복지와 자립의 기본 원리(책자, 2009년), 2쪽.
5.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724쪽.
6. 고든 비 헝클리, “영구 교육 기금,”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2쪽.
7. 러셀 엠 벨슨, “Addiction or Freedom,” *Ensign*, 1988년 11월호, 6쪽; 엠 러셀 발라드, “오 악한 자의 저 간교한 계획이여,” *리아호나*, 2010년 11월, 108쪽 참조.
8.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가정 비축(소책자, 2007) 참조.
9. “가족 가정 비축: 새로운 메시지,” *리아호나*, 2009년 3월호, 12~13쪽 참조.
10.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재정(소책자, 2007).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복음 생활이 우리를 지탱해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니리나 조세프선-랜드리아미하리소아.

“간증이 굳건하면 평화와 위안과 확신이 깃듭니다. 간증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주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삶이 아름답고, 미래가 확고하며, 우리 길 앞에 닥쳐올 어려움들을 극복할 역량이 생길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져옵니다. 간증은 기도와 경전 교리를 깊이 생각할 때 가슴에 서서히 스며드는 진리에 대한 이해에서 자랍니다. 약속된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굳건한 확신에 닿을 내린 신앙을 행사하며 그러한 진리대로 살아갈 때, 간증은 훌륭하게 자라납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신앙과 성품,”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45쪽.



1997년
• 후기 성도 사회 서비스가 일 년 동안 629명의 입양을 알선하는 기록을 달성했으며, 이는 20세기에 이 기관에서 달성한 가장 높은 수치이다.²



1999년
• 3월: 복지 서비스가 전 세계에 걸쳐 최대 50개의 새로운 취업 자원 센터를 세우기 위해 중대한 취업 계획을 시작하다.
• 후기 성도 사회 서비스가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로 명칭이 바뀌고, 프로그램이 확대되다.



구주를 따라 온정 어린 봉사에 더욱 힘쓰시다

구주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가르치셨다.(누가복음 9:24)

이 권고에 대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구주께서 우리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쇠퇴합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사실상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 와드와 지부 회원들, 지역 사회, 더 나아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간이나 여유를 내는 일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시간이 한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 우리의 역량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당연히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4:19 참조) 그분께서 맡으신 거룩한 부름을 우리가 나누어 지지는 못할지라도 그분의 성역에 동참할 수는 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성역을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라는 말로 표현했다.(사도행전 10:38)

예수께서는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셨다.(마태복음 9:20~22; 마가복음 8:22~25 참조) 우리는 그와 같은 위대한 기적을 행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프거나 슬픔을 겪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며 위로할 수 있다.

구주께서는 음식이 없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셨다.(마태복음 14:15~21 참조) 우리는 금식 헌금을 후하게 바치고 교회 복지 식량 생산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다. 또한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려는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헤아리고 보살피셨다.(누가복음 8:45~48 참조) 주님의 모범을 따르고자 한다면 영을 통해 우리 눈이 열려 고통 받고 외로움을 겪는 사람, 소외된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인도를 받을 것이다.

2001년

- 취업 자원 센터에 새로운 직업 워크숍이 도입되다. 1년 뒤 자영업 워크숍 자료가 소개되다.
- 9월 5일: 복지 광장이 개보수 작업을 마친 후, 재현납되다.



2003년

- 1월 25일: 겸약하는 삶 웹사이트가 개설되다. providentliving.org
- 전 세계 감독의 창고를 늘리기 위한 주요 계획이 승인되다.
- 교회가 4대 인도주의 계획을 시작하다. 신생아 소생 훈련, 깨끗한 물, 월체어 공급, 시력 치료.

왼쪽 끝: 페루 공화국 출루카나스 청남 회장인 치로트 형제가 교사 정원회 회원인 알렉스와 함께 부상자를 위한 목발을 만들고 있다.



집사들이 모으는 이 금식 헌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꼭 필요하다.

예수께서는 예기치 않은 순간이라 해도(누가복음 24:29 참조), 심지어 고민할 일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다.**(마태복음 14장 참조) 우리는 슬기롭게 그리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봉사하되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하지]”(모사이야서 4:27) 말라는 권고를 받는다. 하지만 때로는 봉사를 하고 축복을 받을 가장 훌륭한 기회가 가장 힘든 시간에 찾아오기도 한다. 구주께서 들려주신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매맞은 사람을 돌보았다.(누가복음 10:30~37 참조)

어떠한 사람도 구주께서 알아차리지 못하실 만큼 그분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는 없으며, 그분께서 손을 뻗지 못하실 만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없다.(마태복음 9:9~13 참조) 구주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돋워줄 수 있다. 더 나은 길을 가르쳐주고, 구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독특한 능력과 환경, 희망을 아시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지 아신다.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 인도를 구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봉사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LDS.org에 접속하여 Service 부문을 본다. 교회 봉사, 지역 사회 봉사, 선교사 봉사, 인도주의적 봉사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5쪽.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야고보서 1:27)

여럿이 힘을 모아

금식의 법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방편으로서 금식의 법을 제정하셨다. 구주께서는 성도들에게 “너희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만큼 …… 그것을 감독 앞에 돌지니라 [이는] ……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교리와 성약 42:31, 34)이라고 가르치셨다. 금식 헌금은 주님 창고를 채우는 주요 자원이다. 교회 회원들은 최소한 금식 중 거른 두 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치도록 권고 받는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은 회원들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10배 더 많이” 베풀도록 요청했다.¹

우리가 금식의 법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우리 사랑과 온정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기도를 동반한 금식은 참된 예배의 한

2009년

- 6월: 새로운 입양 웹사이트가 개설되다, ItsAboutLove.org.³



2010년

- 4월: 새로운 취업 웹사이트인 LDSjobs.org가 개설되다.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포르투갈어로 운영되고 있다.
- 인도주의 계획에 식품 생산이 추가되다.

주

1. “Humanitarian Activities Worldwide,” providentliving.org/content/display/0,11666,4600-1-2323-1,00.html 참조.
2. C. Ross Clement, “LDS Family Services”(unpublished history prepared for LDS Family Services, 2000년 5월 10일) 참조.
3. Kimberly Bowen, “LDS Family Services Launches New Web Site,” *Ensign*, 2009년 9월호, 78쪽 참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지나간 뒤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 신권 형제들. 단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 더 큰 힘이 발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모습이다.



복숭아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들은 여러 영양소가 담긴 음식을 공급하여 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굶주렸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주고 빛을 밝혀 준다.

형태이다. 우리는 금식의 법을 따름으로써 영적인 힘과 현세적 축복, 더 나아가 이타적인 봉사에 대한 열망을 기를 수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금식 헌금의 개념은 이사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정한 금식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고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라].’[이사야 58:7]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금식 헌납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뒤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십이사도 정원회는 교회에 보낸 일반 서한에서 ‘금식의 원리’를 정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성도들이 모범을 삼도록 하십시오. 아울러 빵이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금식을 하고 넉넉하게 헌금을 바친다면 궁핍한 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축복하고 돌볼 수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Rise to a Larger Vision of the Work,” *Ensign*, 1990년 5월, 97쪽.

굶주려 하면 가진 사람은 하루를 금식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먹었을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감독에게 바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오래도록 풍요로울 것입니다. …… 성도 모두가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안색으로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한 우리 모두는 언제나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²

식량 생산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식량 생산과 가공은 처음 도입될 때부터 복지 계획의 주춧돌과 같은 것이었다. 유타 주 전역에 있는 밭과 사업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계획은 교회의 여러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운영하는 방대한 농장 1,000여 곳과 식량 생산 프로젝트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복지 농장은 북미와 유럽, 호주와 폴리네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농장과 생산 시설들은 합병되거나 확대되고 개선되었다. 일부 작은 프로젝트들은 매각되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농장과 시설들을 운영하는 노동은 대부분 교회 회원들이 제공하는 자원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회원들은 해마다 수천 시간을 바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일 식량을



홍콩에 사는 청년들은 이재민들이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비누와 기타 위생용품을 꾸리고 있다.



다른 이를 위해 봉사하고자 마련된 봉사 활동들은 사람들 사이에 유대를 돈독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멕시코에 사는 후기 성도 젊은이들이 이웃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을 청소하고 있다.

생산하고 가공하며 분배한다. 해마다 4천 5백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곡물과 콩, 고기, 과일, 기타 농산물이 생산되어 감독들이 빈곤한 사람들에게 줄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창고 시설이 없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교회 지역에서는 해당 감독이나 지부 회장들이 금식 현금으로 필요한 물품과 도움을 제공한다.

주님의 창고

1936년에 복지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교회 회원들은 함께 일하며 궁핍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경제 상황 악화와 자연 재해, 실직, 질병, 장애, 혹은 손실을 겪을 때 성도들은 신권 지도 아래 함께 일하며 어려움을 덜고, 개인과 가족들에게 축복을 베풀었다. 그 동안 수백 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재능을 헌신하여 축복을 베풀었으며, 문슨 회장이 말씀했듯이 “홀로 선 한 연약한 사람을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 바꾸어주었다.³

1936년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복지 방식에 관한 말씀을 전하며 “새로운 교회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일반 복지 복리에 따라 스테이크와 워드 조직, 신권 정원회, 상호부조회, 기타 여러 보조 조직들이 최대한 봉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⁴

주님께서는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이미 세우셨다. 우리에게는 신권 정원회가 있으며, 상호부조회도 조직되었고, 지상에는 하나님의 신권이 있다.

자신의 일손과 재능, 역량을 헌신하는 교회 회원들은 주님의 창고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었다. 신권 지도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축복하려 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바친 금식 현금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의 시간과 재능, 능력과 힘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회를 받아들여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것이 복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빛이다. 이 충실한 행동은 오늘날 선지자들이 구상했듯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들어올려 줄 것이다.

주

1. 스펜서 더블유 김볼, Conference Report, 1974년 4월, 184쪽.
2. 토마스 에스 문슨, “Be Thou an Example,” *Ensign*, 1996년 11월호, 44쪽.
3. 토마스 에스 문슨, “Messages of Inspiration from President Monson,” *Church News*, 2010년 2월 6일, 2쪽.
4. 히버 제이 그랜트, in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 vols.(1965~1975), 6:19; 대문자 사용을 표준화함.



“저는 모든 분께 제 목소리를 높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복지 계획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임을 선언합니다. 진실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설계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요한계시록 3:20)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면전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을 섬기려 노력할 때 그분을 우리의 변함없는 벗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주님의 방법,” 복지와 자립의 기본 원리(책자, 2009), 12쪽.

복지 원리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십시오

복지 원리에 따라 생활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빛을 청산하고 예산 안에서 생활하며 가족 가정 비축을 하고 저축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신앙은 우리가 정신과 손을 교육하고 매일 일을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끈다. 우리 생활을 돌볼 때 우리는 더 훌륭하게 스스로를 부양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선한 일을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조금 더 잘 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권고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란다.¹ 주님께서 주신 권고에 순종할 때 현세적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찾아온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나 의심이 아닌 용기와 확신으로 인생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맞설 수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돋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형제 자매 여러분, ……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귀에 익숙한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어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궁핍한 사람 도왔나?
 슬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나?
 우리 실수 하지 말고
 남의 짐을 즐겨 짊어지시다
 병들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위로하세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도록 부름받은 이러한 봉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봉사입니다.”²

주

1. 로버트 디 헤일즈, “복지에 대한 복음적 관점: 행하는 신앙,” 복지와 자립의 기본 원리(책자, 2009), 1쪽 참조.
2. 토마스 에스 몬슨,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7쪽.

추가 자료

이곳에서 다른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십니까? 몇 가지 책자나 DVD, 웹사이트, 기타 자료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75yearsofwelfare.org에 접속하십시오.